

국립국어원 2010-3-24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일 시: 2010년 11월 1일 ~ 11월 13일
장 소: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교
강 사: 최용기(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1
-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5
- **한국어 표현(말하기, 쓰기) 교수법**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27
-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39
-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71
- **한국어의 특징**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95
- **한국어 듣기 교수법**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13
- **한국의 언어 정책과 문화 간 소통**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135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1. 머리말

한국인에게 ‘다문화 사회’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낱말이 이제는 친숙하게 들린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들은 이런 용어가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 때문에 그들이 한국인과 차별이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국어사전에는 ‘다문화’라는 낱말이 올라 있지 않다. 다만, 위키 백과사전에서 “다문화(multi-culture)를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하여 일부 국어학계에서는 부정확한 용어라는 지적도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족이 살다 보니 이러한 용어로 국가 교육을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multi-culture’라는 용어를 학문적, 개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곳의 현실에는 맞는 용어이지만, 단일 민족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용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 부부의 모국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 대부분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그 자녀도 명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국인’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접근하는 것과 모호한 중간자 용어인 ‘코시안(코리아+아시아)’이나 ‘온누리안(세계인)’과 같은 용어로 명명하여 정책을 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란 용어를 법률 용어로 보고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볼 때 장단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정과 그 자녀

가 될 것이며 교육 내용과 기관을 대상으로 볼 때는 교육과정과 교재,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교원 제도 등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2. 국내 거주 이민자 분포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 120만 명(2009년)
외국인 근로자 69만 명(2009년)
결혼 이민자 18만 2,000명(2010년)
국제결혼 인구 한 해 3만 3,300여 건(2009년) 전체의 10.8%
국제결혼 가정 자녀 12만 명(2010년)
외국인 유학생 7만 5,850명(2010년)
새터민(북한이탈주민) 2만 명(2010년)

위 내용은 정부 기관이나 언론이 발표한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인구 분포 현황이다. 국제이주기구(IOM)도 2005년에 발표한 ‘세계이민백서 2005’에서 전 세계 이민자의 20%인 3,8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은 ‘이민 천국’이라고 하였고, 이민 송출 국가 1위는 중국으로 그간 3,500만 명이 이민 길에 올랐다고 하였다. 2010년 현재 세계 이민 인구는 2억 1,400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3.1%가 이민자라고 한다.

한국은 지난 1980년대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었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와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로 국내 외국인이 2009년 말 현재에 그 숫자가 120여만 명에 이르며 그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69만 명, 결혼 이주 여성이 1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출신이 아시아에 편중돼 있고, 특히 유학생은 92%가 아시아 출신이며 중국 출신이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3. 국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개화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1959년에 창설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나 1969년에 창설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88 서울 올림픽 전후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고려대학교, 1988년에 이화여자대학교, 1990년에 서강대학교 등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

었고 앞 다투어 전국의 지방 대학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도 학위나 비학위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에 국내 한국어 교육 전공 학위 과정(대학, 대학원)은 85개 대학이고,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단기 양성 과정도 1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 교육원과 평생 교육원,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전국에 171곳,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50여 곳에 이른다. 한 마디로 그동안 대학교의 어학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어 교육은 대학교의 전문 과정과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민간 단체 등으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가고 있다.

3.1.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지원은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대부분 맡고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6년부터 국어문화원 17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어 수요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배출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등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원 양성과 재교육 과정,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 등을 국립국어원이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통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170여 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초·중·고급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사는 주로 대학 어학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사 교육’을 받은 수료자, 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귀화 필기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대학 20곳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귀화 신청 결혼 이민자의 경우, 귀화 필기시험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도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2010년부터는 모든 귀화 신청 대상자에게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로 일원화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과목을 일정 기간 동안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운

영 기관은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기관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도를 운영하고, 사회 통합과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한국어 강사는 해당 운영 기관의 기존 한국어 강사에 대한 기본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2008년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기관·지자체 등 247개 기관에서 1,014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한국어 교육이 51.8%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교육과정에 이민자 교육을 결합하기 위하여 교사 연수에 사용되는 교재 개발과 교육 연수를 주로 담당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관련 지원 사업도 한국어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2세에 대하여 방과 후 한국어 학습이 주된 것이다.

대학 부설 기관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어문 관련 전공자들이 대학 내 교환 학생과 유학 준비생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 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민간단체 또는 복지 시설보다 한국어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다.

정규 학교 교육의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 또는 외국에서 거주하다 온 한국인의 귀국 자녀들이다.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하는 정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5곳)와 국내 귀국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특별 학교(10곳)가 있다.

이렇게 정부 부처 간의 한국어 교육 지원 업무가 다양하여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간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교원 양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2. 결혼 이주 여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

2010년 6월에 결혼 이주 여성은 18만 2,0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면 훨씬 그 숫자가 적지만 한국어 교육 대상자 측면에서 그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 가정을 이룸으로써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적인 관심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이 갖는 다양한 특성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명분과 근거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이들의 법적 신분에 대한 판단과 사

회 구성원 사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녀 취학과 학습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참여하고 있고 여성이면서 한국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도와주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축이 되어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 170여 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국립국어원이 집필하여 제작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지방자체단체가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한다.

아울러 방문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으로 현재 자원 봉사자의 한국어 방문 지도사를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에 파견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은 자원 봉사 조직이었는데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지도자를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에 전국에 내보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 강사 100명을 선발하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이들이 정규 한국어교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3.3.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1990년 초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고 1990년대 후반에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계기로 국제결혼 가정이 나타난 지 15년 가까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들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에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12만 명에 이르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부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부부 간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부모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들도 교육 문제가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녀 교육의 특성상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의 발달이나 사회 적응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발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주로 취학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도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유아기 교육, 유치원 교육,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국립국어원은 이민자 가족의 자녀를 위한 방문 학습지를 개발하여 놀이를 통한 말놀이, 글 놀이, 한국어 놀이 학습 보조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공중파 방송과 함께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존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한국어 능력의 평가 등 직접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학과 국어 교육학과 사이에서 정부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4.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70여 만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민자 구성원 중 최대의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신분을 얻게 되는 과정부터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세 번에 걸쳐 한국어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 학습 과정이며, 두 번째는 한국에 들어온 후에 일선 근로 현장에 종사하기 전 적응 훈련 과정에서의 한국어 학습 과정이며, 세 번째는 근로 현장에 종사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 기회를 갖게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부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운영은 민간 자원 봉사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부설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수가 몇 곳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전국에 8곳(서울, 안산, 의정부, 김해, 마산, 대구, 인천, 천안)이 있고 민간단체가 대략 25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곳이 모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아니며 70여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다. 교육 기간은 대체로 6개월을 넘지 않으며 주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학습 내용은 문법이나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회화와 표현 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근로 현장의 열악한 학습 환경 때문에 제대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국립국어원은 이들을 위해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외국인 근로자용 한국어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1’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3.5.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훈련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현재 국내 새터민 가족은 2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은 전국에 걸쳐 생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북한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달라진 어휘와 발음, 억양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조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최근에는 새터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고 새터민 발음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새터민을 위한 어휘 학습 교재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새터민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새터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3.6. 한국어교원의 현황과 과제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한국어교원이 중요하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의 실재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준은 실제적인 교육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교원은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6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숫자는 총 4,643명(2급 1867명, 3급 2776명)이며 내국인은 4,376명이고 외국인인 267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6년 868명(2급 269명, 3급 599명), 2007년 639명(2급 185명, 3급 454명), 2008년 842명(2급 341명, 3급 501명), 2009년 1037명(2급 613명, 3급 424명), 2010년 1257명(2급 459명, 3급 798명)이다.

한국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자는 이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 진입을 준비하는 외국인,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 유학(준비)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교육 장소는 국내외에 걸쳐 있다. 이 중에 교육 장소의 구분이 확실한 것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 유학생밖에 없다. 이들은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반면에, 외국인(한국 진입 준비, 한국어 학습자, 한국 유학 준비생)과 재외동포 등은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지만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은, 결혼 이주자와 이주 근로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을 위해서, 이민자 가정의 자녀는 한국인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 거주 교포들은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외국 거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한 시험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이 높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이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교원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 기관이 한국어교원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이 한국어교원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자원 봉사자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능력, 열정을 지니고 있지만, 검증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원의 자세와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원은 교원 양성 과정의 단계부터 차별화되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의 양성 방법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의 양성 방법과 다르게 별도의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하고 별도의 한국어교원 교육용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남성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따라서 이해 교육(읽기, 듣기)을 할 때에도 실용적인 이해 교육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고나 간판, 공고문, 성적표, 가정 통신문, 알림장 등 결혼 이주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현 교육(말하기, 쓰기)을 할 때도 화법, 언어 예절,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서류 작성하기 등의 실용적인 말하기와 글쓰기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나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현직 교사로부터 듣는 시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어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 능력을 배양하여 새롭게 이주해 오는 동일한 국적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생활을 안내해 줌으로써 한국 생활 적응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하고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강의가 가능한 이주 여성들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교육한 후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혼 이주 여성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의 자립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능력 있는 구성원으로써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 사회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적당한 직업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3.7. 한국어 교재와 교육 내용의 다양화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뿐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이후 한국어 교재는 국내 외에서 3,700여 종이 발간되었는데 대부분이 범용 교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재는 별로 없다. 그러나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도 초급, 중급, 고급 등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국적이 다르고 교육적 배경, 처해 있는 환경이 아주 다양한데 범용 교재만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습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재와 교구를 개발해야 하고 한국어교원이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령, 결혼 이주 여성이라면 집안일이나 간단한 사무를 보면서 한국어 듣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음 교재 개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남편도 아내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남편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다. 특별히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남편이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숙제나 학습 활동이 교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 남편이 아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외국인 아내가 자신의 모국어를 남편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모국어를 고려할 때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의 교육 목표와 내용도 단순히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두지 말고 이민 사회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 습득은 이민 사회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민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를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민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여 언어나 문화, 인종, 국적이 다른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 교재의 내용도 문법이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전형적인 한국어 기능뿐만 아니라 친교 활동, 정보 교환,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실생활을 포함하되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실어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사회의 일시적인 구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반적인 한국 주부로서 겪게 될 생활 영역과 결혼 이민자라는 특수층에 있음으로 해서 예측되는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은행이나 우체국, 관공서, 전자제품 서비

스 센터 등에서 쉽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내용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면 수업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도 얻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재의 내용에는 자녀의 대화 상황이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전 세계의 부모가 그렇듯이 자녀의 교육이나 성장 과정에는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이 집안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상대는 남편과 이들의 자녀들이다. 자녀와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표현들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어(방언)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민자들이 맨 먼저 접하게 되는 한국인 집단이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지역 사회이므로 그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어를 배워야 한다. 지역어가 널리 쓰이는 지역에서 표준어 교육만을 고집한다면 이들이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3.8.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현황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맡고 있는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정부 기관으로 1991년 1월에 발족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교육진흥부의 한국어교육진흥과이다. 한국어교육진흥과의 그간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학당 개선을 통한 한국어 국외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세종학당 개선을 2010년 6월 현재 30여 곳이지만 연말까지 90개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500개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 부처 공동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 추진, 온라인 누리-세종학당 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어 문법 1, 2(2005년), 초급 한국어 4종의 6개 언어(2008년), 중급 한국어 1의 6개 언어,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2009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중급 한국어 2의 6개 언어, 중급 한국어 1 지침서, 중급 한국어 2 지침서(2010년) 등 표준 한국어 교재의 발간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교육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 개발 방영(2007년, EBS), 한국어 교육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영(2009, YTN), 한국어 교육 DVD 제작 배포(SBS, MBC)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습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56주용 학습지와 수십 종의 놀이 도구를 개발하였다.

셋째, 한국어교원 양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총 34회, 960명), 한국어 전문가를 국외에 정례적으로 파견(총 97지역 186명)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2010년 6월 현재까지 4,643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아울러 특화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방문지도사 대상 양성과정,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대상 양성과정,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연 300명 참가)를 개최하여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학회 등과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 한국어 모형 연구, 한국어 해외 사이트 조사, 한국어 교육 기관 조사, 한국어 교재 백서 등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3.9.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해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립국어원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첫째, 내실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의 발간과 배포에 노력해야 한다. 국내 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특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유관 부처(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결혼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한국어, 이주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부부가 공동으로 배우는 한국어 등 차별화된 한국어 교재(초급, 중급, 고급)를 개발하고 지침서와 임함책(워크북)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멀티 자료와 시청각 자료도 교육 자료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훌륭한 한국어교원과 좋은 한국어 교재가 있다면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한국어교원의 양성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를 확보하고 이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원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써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원 양성 기관이나 교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참여형 한국어 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형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수필 대회, 한국어 글짓기 대회, 한국어 웅변대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회 성격에 맞게 상장이나 부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높은 방송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다매체 시대를 맞아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교재를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의 편

이성과 학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고 다변화되고 있으나 이에 맞는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실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이 시급하고 이어서 언어권별 표준 한국어 교재와 단계별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코퍼스) 자료를 구축하고 쉬운 한국어 사전도 발간해야 한다.

4. 맺음말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이주 사회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원은 대부분이 자원 봉사자이고 한국어 교재는 범용 교재가 대부분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한국어교원과 한국어 교재이다. 훌륭하고 믿을 만한 한국어 교원과 재미있고 특성화된 한국어 교재가 있다면 한국어 교육은 성공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일반적인 언어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생존해 가는 수단의 하나로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김형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훈민정음의 창제

1.1. 창제 시기

(1) 시기: 세종 25년(1443년) 음력 12월 창제 (반포: 1446년 9월)

(2) 근거

㉠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25년(1443) 12월 조)

(“이달에 임금께서 직접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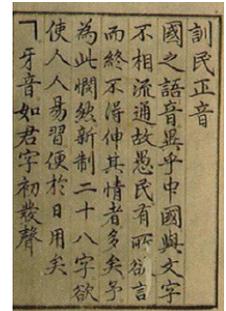
㉡ “是月 訓民正音成……” (《세종실록》 28년(1446) 9월 조)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

㉢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 名曰訓民正音 …… 正統十一年 九月 上漸 ……”

(《訓民正音 (해례본)》 정인지 序)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만드셨는데, ……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 정통 11년 9월 상한 ……”)



1.2. 훈민정음 해례본의 체제

(1) 본문 - 예의(例義)

㉠ 어제 서문(御製 序文): 창제의 동기와 목적

㉡ 예의(例義)

- 자음과 모음의 음가(자음 17자와 모음 11자의 음가)
- 자음과 모음의 운용(중성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에 관한 규정)
- 성음법과 사성점(음절을 이루는 법과 음의 고저 표시법을 밝힘)

(2) 해례(解例)

- ㉠ 제자해(制字解):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자모음 체계, 음상 등에 대한 설명
- ㉡ 초성해(初聲解): 동국정운 23초성 체계에 따른 자음 설명
- ㉢ 중성해(中聲解): 중성의 규정과 이중 모음에 대한 설명
- ㉣ 종성해(終聲解): 종성의 본질과 ‘8종성가족용’, 사성(四聲) 등에 대한 설명
- ㉤ 합자해(合字解):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글자가 됨을 설명, 성조에 대한 설명
- ㉥ 용자례(用字例): 실제 사용의 예를 낱말 95개를 들어 설명

(3) 정인지 서(序): 훈민정음 창제 취지와 경위, 의의, 가치 등을 밝히고, 편찬자, 창제 시기와 완성 시기가 밝혀져 있음.

1.3.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글자 체계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꼴을 본떠서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1) 초성의 제자 원리

㉠ 기본자: 상형(象型)의 원리 (발음기관을 상형)

“초성은 17글자인데,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본뜨고,
 헛소리 ㅋ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꼴을 본뜨고,
 입술소리 ㆁ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 ㆁ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소리 ㆁ은 목의 모양을 본떴다.”

㉡ 그 밖의 글자: 가획(加劃)의 원리

ㄱ → ㅋ

ㄴ → ㄷ → ㅌ (ㄷ → ㄹ)

ㄹ → ㄺ → ㅍ

ㅅ → ㅆ → ㅈ (ㅅ → ㅊ)

ㅇ → ㆁ → ㆁ (ㅇ → ㅎ)

㉔ 예외: 이체자(異體字) / ㅎ, ㄹ, △ (획을 더하는 뜻은 없음.)

초성					중성		
이름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기본형	자형	상형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ㅇ	·	圓	象乎天
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ㄷ, ㅌ	ㄹ	—	平	象乎地
脣音	ㅁ	象口形	ㅂ, ㅃ				
齒音	ㅅ	象齒形	ㅈ, ㅉ	△		立	象乎人
喉音	ㅇ	象喉形	ㅎ, ㅎ				

(2) 초성 17자의 체계

조음방법 조음위치	전청(全淸)	차청(次淸)	불청불탁 (不清不濁)	전탁(全濁)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
엄소리[牙音]	ㄱ	ㅋ	ㅇ	ㄲ
혀소리[舌音]	ㄷ	ㅌ	ㄴ	ㄸ
입시울소리[脣音]	ㅂ	ㅃ	ㅁ	ㅍ
니소리[齒音]	ㅅ, ㅆ	ㅈ		ㅊ, ㅄ
목소리[喉音]	ㅇ	ㅎ	ㅇ	ㆁ
반혀소리[半舌音]			ㄹ	
반니소리[半齒音]			△	

(3) 천지의 이치

오음 (五音)	자음 (子音)	오행 (五行)	오季 (계절)	오音 (음악)	오方 (방위)	오색 (五色)	사단 (四端)	오감 (五感)	오장 (五臟)	오부 (五部)
牙音	ㄱ, ㅋ, ㅇ	木	봄	角	東	靑	仁	따뜻함	간장	쓸개
舌音	ㄴ, ㄷ, ㅌ, ㄹ	火	여름	徵	南	赤	禮	더움	심장	소장
脣音	ㅁ, ㅂ, ㅃ	土	늦여름 (季夏)	宮	中央	黃	信	미지근함	비장	밥통
齒音	ㅅ, ㅆ, ㅈ, △	金	가을	商	西	白	義	서늘함	폐장	대장
喉音	ㅇ, ㅎ, ㅎ	水	겨울	羽	北	黑	智	차가움	신장	방광

(4) 중성의 제자 원리

㉠ 기본자: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추상화하여 상형 (·, 一, 丨)

기본자	상형	혀의 모양	소릿값
·	天	舌縮	聲深
一	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丨	人	舌不縮	聲淺

㉡ 그 밖 : 기본자를 바탕으로

- 초출자(初出字): ㄱ, ㅋ, ㆁ, ㆑
- 재출자(再出字): ㆁ, ㆑, ㆒, ㆓

(5) 중성

“중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1.4. 문자의 운용

(1) 연서법(連書法, 니셔쓰기)

순경음을 표기하는 방법: 순음(口, ㅂ, ㅃ, ㅍ) 아래에 ㅇ을 붙인다. → 순경음(ㅁ, ㅂ, ㅃ, ㅍ)
 ㅁ은 순수 국어에만 사용, 그 밖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사용.
 세종, 세조 때만 사용되고 소멸

(2) 병서법(並書法, 곱바쓰기)

둘 이상의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철자법

㉠ 각자병서(各自並書): 같은 자음을 반복해서 쓰는 법: ㄱ, ㄲ, ㅃ, ㅅ, ㅆ, ㅈ, ㅉ, ㅊ, ㅌ

㉡ 합용병서(合用並書):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법: ㅃ, ㅅ, ㅆ, ㅈ, ㅉ, ㅊ, ㅌ

(3) 부서법(附書法, 브터쓰기)

“·와 一와 丨와 ㅁ와 ㆁ와 ㆑와 ㆒와 ㆓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쓰고 丨와 ㅁ와 ㆁ와 ㆑와 ㆒와 ㆓와란 올흔녀기 브터쓰라.”

자음에 모음을 합하여 한 글자(음절)가 되도록 붙여 쓰는 법

- ㉠ 하서(下書): 초성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 우서(右書): 초성 + ㅣ, ㅓ, ㅕ, ㅗ, ㅛ, ㅜ, ㅠ

(4) 성음법(成音法)

“물읏 字종 ㅣ 모로매 어우러샤 소리 이느니.” (凡字必合而成音)

(5) 사성점(四聲點)

“원녀괴 혼 點덤을 더으면 ㅏ노푼 소리오 點덤이 들히면 ㅓ쌍聲성이오 點덤이 업스면 ㅗ뽕聲성이 오 ㅓㅓ聲성은 點덤 더우믄 혼가지로되 썩르니라.”

※ 우리 글자 이름의 변천

- ㉠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 때 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뜻
- ㉡ 정음(正音): 정인지의 서문. ‘훈민정음’을 줄인 말.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 ㉢ 언문(諺文): ‘언(諺)’은 ‘우리말·우리글’의 뜻으로 훈민정음 이전부터 쓰이다가 훈민정음 이후 ‘정음’의 뜻으로 쓰임 <훈민정음 해례>에 나옴. 「세종실록」에 ‘언문청’이란 말이 나옴.
- ㉣ 언서(諺書): 한문을 진서(眞書)라고 한 데 대한 대립어
- ㉤ 반절(半切): 최세진의 ‘훈몽자회’. 중국 운학의 반절법에서 유래(東 = 德洪切)
- ㉥ 암글: 부녀자들이나 쓰는 글. 선비가 쓸 만한 글은 되지 못한다.
- ㉦ 상말글: 한문은 양반이 쓰는 글이고 한글은 상놈들이나 쓰는 글이라는 뜻에서 붙임.
- ㉧ 한글: 1910년 주시경에서 비롯함. 1927년 <한글>지에서부터 널리 쓰임. ‘한’은 ‘하나’ 또는 ‘큰’의 뜻. 우리글을 언문이라 낮추어 부른 데 대해 정당한 우리말 표기 글자란 뜻으로 권위를 세워 준 이름.

2. 한글의 우수성

2.1. 창제 원리의 측면

(1) 독창성

- ㉠ 상형의 원리: 기본자를 발음기관과 관련시킴. 사람의 혀나 입, 목구멍과 같은 사람의 발음

- 기관을 본뜨거나 하늘과 땅, 사람(천·지·인 삼재)의 생김새를 본떠 독창적으로 창제함.
- ㉠ **신제(新制) 문자**: 1443년 음력 12월에 세종대왕이 직접 만듦. 탄생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

(2) 조직성

- ㉠ **이원적 구성과 가획의 원리**: 먼저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에서 파생시켜 그 밖의 글자를 만듦.
- ㉡ **계열적 구성**: 음성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면 그 글자의 모양에서도 비슷하게 묶음. 기본자와 그 밖의 글자들 간의 음성학(음운학)적 관계 파악. 배우기 쉽고 쓰기 쉬움.

(3) 개방성과 경제성

- ㉠ **글자 추가 가능**: 초성 기본자 5글자(ㄱ, ㄴ, ㄷ, ㄹ, ㅇ)와 중성 기본자 3글자(·, 一, 丨)를 바탕으로 가획, 연서, 병서 등의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 **문자 활용 극대화**: 유한한 수의 자음과 모음으로 수많은 소리마디[음절]를 만들어 냄.
- 옛글자 활용 399억 자 조합, 현재 24자모로 11,172자 조합 가능.
 - 문서편집기에서 완성형 50만 자 활용.
- ㉢ **발음기호로 활용 가능**: 소수 민족에게 글자 보급, 문맹인 교육, 외계인과의 교신 등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음.

2.2. 활용의 편리성 측면

(1) 모아쓰기 방식

- ㉠ 훈민정음 해례의 부서법(브터쓰기)에 따름.
- ㉡ 모아쓰면 뜻을 알기 쉬워서 독서에 능률적이고, 풀어쓴 것보다 한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한자와 한글이 음절단위로 일대일 대응을 이루어 한자의 소리를 한글로 표기할 때 편리함.
- [참고] 문자의 발달**: 그림 문자 → 상형 문자 → 표의 문자 → 음절 문자 → 음소 문자 → 자질 문자(한글)
- ㉣ 가로 쓰거나 세로 쓰기로도 문제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2) 기계화와 정보화

- ㉠ 컴퓨터의 2진수 0과 1 : 한글의 자음과 모음

- ㉞ 컴퓨터에서 입출력이 자유로워 문서편집기(워드프로세서) 발달
 - 한정된 자모 입력으로 수많은 완성된 글자 자동 출력
- ㉟ 컴퓨터 입력 속도 빠름. 휴대 전화 문자 전송 유리함.
- ㊱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에 유리: 문자와 소리의 일치. 묵음자 없음. 모음은 일정한 소릿값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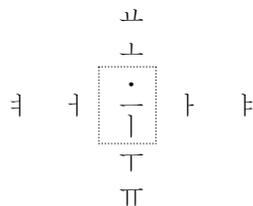
2.3. 형태면

(1)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다름

- ㉞ 한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ㅈ ㅊ ㅌ ㅍ ㅈ ㅊ ㅌ ㅍ
- ㉞ 알파벳: abcdefghijklmnopqrstuvwxyz

(2) 도형의 원리

- ㉞ 대칭과 가획: 최소한의 도형인 점과 선과 원만으로 글자를 만들고, 도형의 원리인 대칭과 가획으로 자형을 이룸.
 - 좌우 대칭: ㅂ ㅎ ㅅ ㅈ
 - 상하 대칭: ㄷ ㅌ
 - 상하 좌우 대칭: ㅁ ㅍ ㅇ
 - 두 글자 대칭: ㅏ ㅑ
- ㉞ 입체 구조: ·, 一, | 를 기본으로 양성 모음자는 오른쪽과 위쪽에, 음성 모음자는 왼쪽과 아래쪽에 배치함.



[읽을 거리] 우리의 자랑, 한글 _김형배(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창비, 2011년)

한글은 탄생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다. 한글 창제의 원리 등을 밝혀 놓은 책인 “훈민정음(해례본)”은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보다 8년 전인 1989년에 유네스코에서는 문맹 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에 ‘세종 대왕 문맹 퇴치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국제 사회가 한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매우 낮은 것도 한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한글 창제의 원리와 그 구조를 살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확인해 보자.

● 한글 창제의 원리

한글 창제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글은 다른 문자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나 입, 목구멍 같은 발음 기관을 본뜨거나 하늘, 땅, 사람의 생김새를 본떠 만든 독창적인 문자이다.

자음의 경우 기본 글자는 다섯 자이다.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헛소리 ‘ㅋ’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입술소리 ‘ㄷ’은 입 모양을, 잇소리 ‘ㅌ’은 이 모양을, 목소리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뜨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 모양만 보고서도 그 글자가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ㄷ, ㅌ, ㅌ’은 모두 입술소리인데 글자에 똑같이 ‘ㄷ’이 들어 있어서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음의 기본 글자는 ‘·, ㅡ, ㅣ’ 세 글자인데, 이것 또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형의 원리를 따랐다.

한글 자모 28자는 제각각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 글자 몇 개를 먼저 만든 다음 여기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 글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한글은 글자를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우고 활용하기가 매우 쉬운데 그것은 이러한 한글 창제의 두 번째 원리인 ‘가획의 원리’ 때문이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다섯 글자를 제외한 자음 글자 대부분은 가획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 가며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소리 차이를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종류가 같은 자음이되 획이 하나씩 덧붙으면 한 단계씩 더 거센소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 글자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ㅋ’은 획이 더해지면서 ‘ㄱ’보다 소리가 좀 더 세진다. 다른 나라 글자들도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예가 있지만 그것이 소리의 변화와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된 문자는 한글뿐이다. 모음의 경우에는 기본 글자 ‘·, ㅡ, ㅣ’를 제외한 모음 글자 가운데 ‘ㅏ, ㅑ, ㅓ, ㅕ’는 ‘·’를 ‘ㅡ’와 ‘ㅣ’에 결합하

여 먼저 만들고, 여기에 ‘·’를 다시 결합하여 ‘ㅁ, ㅂ, ㅅ, ㅈ’를 만들었다.

한글은 ‘계열적 구성’을 이룬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즉, 같은 계열의 말소리를 적는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어금닛소리 ‘ㄱ, ㅋ’은 모두 혀의 뒤쪽이 여린입천장에 닿아서 소리가 나는 글자들로 모양 또한 서로 비슷하다. 혀소리인 ‘ㄴ, ㄷ, ㅌ’ 또한 글자마다 혀가 윗잇몸에 붙는 꼴인 ‘ㄴ’이 있어서 서로 모양이 비슷하고, 입술소리 ‘ㅁ, ㅂ, ㅍ’에는 입 모양을 본뜬 ‘ㅁ’이, 잇소리 ‘ㅅ, ㅈ, ㅊ’에는 이 모양을 본뜬 ‘ㅅ’이, 목소리 ‘ㅇ, ㅎ, ㅎ’에는 목구멍 모양을 본뜬 ‘ㅇ’이 각각 있어서 서로 모양이 비슷하다. 모음의 경우 ‘ㅏ, ㅑ, ㅓ, ㅕ’는 반모음 ‘ㅣ’가 앞서는 이중 모음인데 글자 모양에서도 ‘ㅣ’나 ‘ㅡ’를 중심으로 각각 점이 두 개씩 찍혀 있어서 역시 모양이 비슷하다.

또한, 한글은 ‘개방성’이 뛰어난 문자이다. 자모 28자를 바탕으로 연서, 병서, 합용의 방식으로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자음 두 개를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연서법으로 순경음 ‘ㅁ, ㅂ, ㅍ, ㅅ’을 만들어 썼고, 자음 두 개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법으로 ‘ㄱ, ㄷ, ㅂ, ㅅ, ㅈ’이나 ‘ㅁ, ㅂ, ㅅ’과 같은 글자들을 만들어 썼다. 모음의 경우 ‘ㅏ’와 ‘ㅑ’, ‘ㅓ’와 ‘ㅕ’를 합용하여 ‘ㅑ, ㅕ’를 만들고,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에 ‘ㅣ’를 병서하여, ‘ㅑ, ㅕ, ㅗ, ㅛ, ㅜ, ㅠ’를 만들고, ‘ㅏ, ㅑ, ㅓ, ㅕ’와 ‘ㅑ, ㅕ’에 다시 ‘ㅣ’를 합용하여 ‘ㅑ, ㅕ, ㅗ, ㅛ, ㅜ, ㅠ’와 같은 글자를 만들어 썼다.

● 모아쓰기

‘나무’라는 글자는 ‘ㄴ, ㅏ, ㅁ, ㅓ’로 각각 쪼갤 수 있다. 이처럼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 ‘음소 문자’이다. 그렇다면 왜 한글은 알파벳처럼 자음과 모음을 나누어 ‘ㄴ ㅏ ㅁ ㅓ’와 같이 풀어쓰지 않고 ‘나무’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쓸까?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소리를 들을 때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음절 단위로 듣는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누군가가 소리를 내면 우리는 ‘나’, ‘무’라고 한 덩어리의 음절로 듣지 ‘ㄴ, ㅏ, ㅁ, ㅓ’로 나누어 음소 단위로 듣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은 음절을 소리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글자 대부분은 음절 단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음절을 적는 방식으로 만든 문자는 적을 수 있는 소리의 수가 매우 제한되거나 소리만큼 글자가 많아야 하므로 익히고 활용하는 데 불편하다. 한글은 음절 문자로 만들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적는 문자를 따로따로 만들어 적은 수의 글자로 매우 많은 음절을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소리가 분석되는 최소 단위인 음소 단위, 즉 자음과 모음으로 문자를 만들고, 소리 낼 때를 고려하여 이것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규정한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자음과 모음 24자만으로 글자를 11,172개나 만들어 쓸 수 있으니 모아쓰기는 매우 효율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아쓰기를 하면 읽기도 편할 뿐 아니라 의미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ㅎㅏㄴㄱㅡㄹㅅㅏㄹㅏㅇ’이라고

쓰는 것보다 ‘한글 사랑’으로 모아쓰는 것이 쓰기는 불편할지 몰라도 읽기가 편하며 의미도 쉽게 전달된다.

한때 주시경 선생, 최현배 선생 등이 한글 풀어쓰기를 주장했다. 한글을 풀어쓰면 단어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읽기 쉽고, 필기체를 만들어 쓸 수 있어 쓰기도 쉽다는 것이다. 또한, 타자기에 적합하여 기계화하기 쉽고, 받침이 없어져 표기법이 간편해지며, 한자 폐지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때를 놓쳐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컴퓨터가 보편화된 오늘날 한글은 여전히 모아쓰기를 하면서도 전혀 문제없이 기계화되어 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모아쓰기를 해 주기 때문이다. 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수가 비슷하여 왼손과 오른손으로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가며 치기 때문에 타자 속도가 알파벳보다 훨씬 빠르다.

● 한글의 미래

서양에서도 19세기 중엽에 사람의 소리를 글자로 적기 위해 발음 기관을 정확히 본뜬 글자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멜빌 벨은 발음 기관 위치와 발음 기관이 움직이는 모양을 그린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이는 음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벨의 음성 문자가 발음 기관을 본뜬 최초의 문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미 400년이나 앞선 15세기에 한국에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글의 우수성은 1963년에 미국의 언어학자 맥콜리 교수가 당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포스 교수의 논문을 세계적 잡지인 “언어”에서 평가하면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포스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하였다. 한국 알파벳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며, 고도의 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 후 서양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5년 영국의 언어학자 샘슨 교수는 “문자 체계”라는 책에서 “한글은 의심할 것 없이 인류가 만든 위대한 지적 산물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다.”라고 하였다.

서양의 어느 언어학자는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세종 대왕 영정 앞에 한국 음식을 차려 놓고 기념식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고 한자와 로마자를 남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외계어’까지 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컴퓨터는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면 저절로 모아쓰기된 글자를 만들어 주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한글은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 그리고 한글은 글이 없어 언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소수 민족들에게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 그 입지를 더욱 넓혀 갈 것이다. 우리는 한글에 자긍심을 가지는 한편, 한글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다.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한국어 표현(말하기, 쓰기) 교수법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한국어 표현(말하기, 쓰기) 교수법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1. 말하기 교수법

1.1. 들어가기

인간의 언어활동은 음성을 매개로 하는 듣기와 말하기, 문자를 매개로 하는 읽기와 쓰기, 이 네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 듣기와 말하기는 특별한 가르침 없이 모국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읽기와 쓰기 능력은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그런데 외국어 학습의 경우에는 제한된 언어적 환경과 교실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네 가지 기능을 의식적으로 가르치며 배우게 되는데 모국어 화자에 비해 훨씬 부족한 언어적 환경과 시간 속에서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와 학습이 중요하다.

언어의 네 기능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모두 중요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은 사실상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표현 기능인 말하기와 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말하기는 구두로 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언어 교육(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2. 말하기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1)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
- 2) 학습자의 나이
- 3) 학습자의 성향 및 요구 사항
- 4) 학습자들의 인적 구성

1.3. 말하기의 특징

말하기는 시간적 제약 하에서의 상호 교섭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므로 듣기와 말하기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극대화해야 한다.

- 1) 복잡한 문형보다는 단순한 문형을 사용하려고 한다.
- 2) 완전한 문장이 아닌 축약된 형태를 사용한다. 생략, 모음 축약 등
- 3) 관용 표현, 속어 등 일상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말을 사용한다.
- 4) 시간 끌기: 제한된 시간에 발화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주저하거나 반복과 수정을 한다.
- 5) 듣거나 연상 활동 후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상호 작용이다.

1.4. 말하기의 구성

- 1)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단위, 범주, 문법 기능 등을 인지하고 이들에 관한 규칙을 내재화하는 과정인 ‘기능 습득 단계’와 내재화된 규칙에 의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며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사용의 단계’로 나눈다(Rivers and Temperley)
- 2) 기계적 연습 → 유의적 연습 → 의사소통적 연습 → 의사소통 행위(Paulston & Bruder)
- 3) 의사소통 행위 이전에 준비 단계를 두어 지도해야 한다.(Littlewood)
- 4) 초급과 중급에서는 언어의 형태적 요소 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학습하게 하는 과제 수행 중심의 활동으로 이끄는 수업 활동이고 고급은 과제 활동 후 언어의 형태적 요소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Task-based approach)

1.5. 말하기 교육의 원리

- 1)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 2) 학습자의 능력과 성향에 따른 과제 중심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의미에 중점을 둔 말하기 활동을 한다.
- 4) 학습자 간 상호 활동할 기회를 많이 주고 의사소통의 질을 높인다.
- 5) 정형화된 표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 기재 안에서 말하기를 할 수 있게 한다.
- 6) 정확한 발음과 적절한 속도로 자연스러운 발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7) 적절한 오류 수정 과정을 거친다.
- 8) 가능한 다른 3가지 기능(쓰기, 듣기, 읽기)과 연관 지어 교육한다.

1.6. 말하기의 교재 및 자료

말하기의 교재 및 자료는 학습자의 요구와 단계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교수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하며, 실생활과 맞고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 1) 문자화된 교재(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주 교재, 신문, 잡지 등)
- 2) 시청각적 교구(그림, 지도, 실물, 모형, 궤도, 도표, 사진, 카드, 방송, 텔레비전, 비디오, 연극, 영화, CD)

1.7. 말하기 교수 방법

말하기의 형식에는 화자와 청자의 구성에 따라서 대화 형식, 독화 형식, 회화 형식, 혼합 형식 등이 있다.

- 1) 대화 형식: 둘이서 서로 말하고 듣는 형식(인사, 문답, 대담, 소개, 전화)
- 2) 독화 형식: 한 사람이 말하고 여럿이 듣는 형식(설명, 발표)
- 3) 회화 형식: 여럿이 말하고 듣는 형식(회화, 토의, 회의, 토론, 좌담)
- 4) 혼합 형식: 통합 교육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하기와 듣기, 말하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등을 혼합시킨 형식

1.7.1. 초급에서의 교수 방법

- 1) 대화 형식: 역할 놀이, 수업 내용 복습, 관련 단원의 그림 이야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게임.

2) 독화 형식: 주말 이야기, 오늘의 화제, 그림·사진 이야기

1.7.2. 중급 이상에서의 교수 방법

- 1) 회화 형식: 단어 게임, 연상 게임, 이야기 만들기, 토론하기
- 2) 혼합 형식: 듣기와 통합(문장 듣고 요약하기, 드라마·영화·뉴스 듣고 요약하기)
읽기와 통합(신문 기사·광고 읽고 요약하기)
쓰기와 통합(날말 맞히기, 연극, 인물 조사, 면접 조사, 말하기 대회)

1.7.3. 고급에서의 교수 방법

좌담회, 연구 발표

1.8. 과제 수행식(task-based) 수업의 모형

- 1) 과제 준비 단계
 - ① 교사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명동에 가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갔는지 물어본다.
(이미 학습된 어휘 및 표현이 나온다).
 - ② 교사는 지하철 노선도와 버스 노선도를 가지고 들어가 어떻게 명동에 갔는지 얘기해 준다.
- 2) 과제 설정 단계
 - ① 교사가 어디에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대화를 해 본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표현들을 써준다.
 - ② 과제의 기능을 그림이나 사진, 상황 그림 등을 이용하여 칠판에 붙인다.
 - ③ 과제를 수행할 그룹을 정해주고 역할을 분담한다.
 - ④ 각각의 역할에 해당하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묻는다.
- 3) 과제 수행 단계
 - ① 구성된 그룹(2인) 별로 대화를 구성하게 한다.
 - ② 교사는 각 그룹을 모니터하고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 ③ 쓰기와 연계하여 자신 또는 상대의 경험을 써보게 한다.
- 4) 과제 평가 단계
 - ① 그룹별로 발표를 시키고 발표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한다.
 - ② 모범대화문을 확인 점검한다.
 - ③ 숙제를 준다.

1.9. 말하기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경향

1) 성취 전략(achievement strategies)

- ① 추측: 모국어를 외국어로 만들어 버린다.
모국어 어휘를 사용한다.
자신의 언어 기재에 근거 어휘를 생성한다.
- ② 어휘 대치: 반의어, 유의어의 사용,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다.
- ③ 협동: 상대방에게 물어보거나 상대방을 흉내 낸다.

2) 단순화 전략(reduction strategies)

*회피 전략: 어려운 발음이나 문형을 피해서 이야기한다.

1.10. 교사의 역할과 교사의 말하기

외국어 학습과 교수에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교실에서는 수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언어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통제자, 감독자, 관리자, 촉진자, 자료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교사의 지시나 설명과 같은 교사 언어는 학습자에게 입력이 되므로 특히 중요하다. 교사 발화는 그 언어적 수준과 길이에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적절해야 하며 장황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발화는 학생을 자극하여 학생으로부터 발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교사의 일방적 지시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고 학습자가 대답을 하기까지 적절하게 기다려 주어야 하며 학습자의 발화에 적절한 반복 학습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을 하는 교실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언어의 형태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느냐에 집중하게 된다. 한번 말을 하기 위해서는 속으로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기를 기피하게 까지 된다. 그러나 언어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는 것이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교사는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말할 때는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아를 보호하려는 정의적인 벽을 없애거나 낮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생의 오류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여 간섭하고 교정하면 학습자들이 의기소침하여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오류를 교정해 주지 않고 지나칠 경우 학습자의 오류가 굳어져 화석화될 수 있다.

2. 쓰기 교육

쓰기 교육은 1960년대까지 쓰기의 결과물을 중시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이 도입되어 완성된 글이 아닌 그을 쓰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즉, 이전까지는 쓴 글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에는 학습자 스스로 쓰기의 목적을 이해하고 쓰기 전략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쓰기 교육은 자모를 정확하게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문자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생활에서 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쓰기 학습이 필요하다. 말과 글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서로 다른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쓰기는 모국어 화자의 경우도 그 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기능으로 외국어 학습자는 더 어려움을 느끼고 지도 방식에 있어서도 말하기만큼 다양하지 못하므로 효율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2.1. 쓰기 수업의 내용

- 1) 철자법, 구두법에 집중하면서 자료를 옮겨 쓰거나 재생산하는 활동.
- 2) 언어적인 지식 강화를 위해 문형에 맞추어 다양한 문장을 구성하여 쓰는 활동.
- 3) 실생활에서 사용 목적을 위한 쓰기 활동: 이력서, 편지, 일기 등.
- 4) 학문적인 목적으로 지식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활동: 보고서, 산문, 시험 답안 등.

2.2. 쓰기의 단계별 요목

- 1) 한글 익히기
- 2) 표기 지도
- 3) 단문 지도
- 4) 작문 지도

2.3. 문자 언어의 특성

- 1) 불변성: 완성된 글이 전달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함.
- 2) 산출 시간 소요: 일정한 산출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고,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완성하는 훈련도 함.
- 3) 시간적·공간적인 거리: 다른 시간, 장소에서 글이 읽혀질 것을 고려해서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함

- 4) 철자: 문자만으로 의사를 전달하므로 철자에 주의를 요함.
- 5) 복잡성: 구어보다 복잡하므로 문장의 구성이나 통사적·어휘적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를 유도함.
- 6) 다양한 어휘: 구어에서보다 다양한 어휘 사용이 요구됨.
- 7) 형식성: 구어에 비해 형식성을 가지므로 형식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함.

2.4. 쓰기 활동의 유형

1) 통제된 쓰기

엄격하게 지시된 방법으로 쓰도록 하는 것으로, 자모 익히기, 문법 익히기, 맞춤법 등에 중점을 둔다.(받아쓰기, 바꿔 쓰기, 문장 완성하기)

2) 유도된 쓰기

통제된 쓰기보다 광범위한 쓰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작문의 전 단계이다.

- 질문에 대한 답 쓰기
- dicto-comp: 교사가 제시한 이야기와 핵심 단어들로 글을 재구성하는 작업
- 그림 보고 사물 묘사하기
- 도표, 통계 보고 서술하기
- 담화 완성하기
- 이야기 구성하기(그림, 정보 등으로)

3) 자유로운 쓰기

다양한 문어·구어적 자극을 주고 글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강의 메모, 일기, 수필
- 읽기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읽고 요약하기, 모방 쓰기, 자신의 생각 쓰기)
- 자유 작문

2.5. 과정 중심의 쓰기 활동의 순서

1) 쓰기 전 단계

- 과제를 제시하고, 주된 개념을 찾는다.

- 주제와 관련된 사실이나 내용을 모은다.
- 주된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실과 생각을 조직한다.
(개인 활동, 짝 활동, 소그룹 활동 등)

2) 쓰기 단계

- 도입으로 주제문을 쓰고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 각각의 지지 문단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문단 구성을 따라가는지 확인한다.
- 의도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분명하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한다.
- 주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다.
- 사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어휘를 찾는다.

3) 쓰기 후 단계

- 글의 흐름에 일관성, 통일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 글의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의 구성을 확인한다.
- 문단들의 관계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 주제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철자법, 문법, 문장 구조를 확인한다.
- 문맥이 통하는지 확인한다.
- 글이 재미있는지 확인한다.

3.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어의 표현 기능인 말하기와 쓰기의 교수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언어 학습과 교수 이론의 변천에 따라 외국어 학습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왔는데 지난 30~40년간은 언어의 의미와 기능, 화행을 강조하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어 왔다. 인간 언어의 주요 수단인 음성과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때 말하기와 쓰기는 각각 표현을 담당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듣기는 구두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하기와 떼어 수 없는 관계이고 쓰기도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읽기를 반드시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 수행 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기능별 교수 시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능별 교재나 교육 자료, 과제, 활동 등을 개발할 때에도 다른 기능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통

합적인 언어 발달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 교육 자료, 과제, 활동의 소재나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연습의 단계는 언어적 항목을 습득하기 위한 통제 연습에서부터 점차 자유로운 의사소통 활동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데 통제 연습에서도 가능한 의미성을 띠어야 한다.

교사가 새로운 어휘나 문법 항목을 가르칠 때는 사전적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사의 지시 문장은 간결하고 정확하여 학습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일방적인 설명을 지양하고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수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최적의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습자의 조력자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¹⁾

김형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언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범위

- 언어에 함축된 문화를 교육한다.
 - 어휘에 함축된 문화적인 정보
 - 문법이나 표현의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
 - 관용 표현, 속담
 - 감각어: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
 - 한국적인 표현: 인사말, 호칭어, 관용어구
- 언어사용 문화를 교육한다.
 - 언어사용 예절, 언어사용 상황, 언어사용 방법
 - 예) 물건을 사고 팔 때의 대화 전개 방식, 사과하기, 요청하기 등의 화용, 토론이나 설득의 화법
-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 현상을 교육한다.
 -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 광고, 영화, 인터넷 자료
 - 문학 작품
- 언어로 다루는 문화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모든 문화 영역: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 주변 학문에서 다루는 모든 것
 - 고급 단계 학습자: 정신문화, 예술문화 등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주제 관련 내용
- 언어 사회에 대한 교육을 한다.

1) 이 단원은 현운호(2004),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자료(국립국어원)를 정리한 것이다.

- 총체적 이해: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 사회의 변화,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종교, 예술 등에 관한 이해

2. 문화 교육의 내용

문화 교육은 성취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 규범, 생활 양식,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초급의 학습자들에게는 우선 현대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① 한국의 언어문화

- 존대법, 겸양법: 화계, ‘-시-’, 각종 어휘적 높임말, 고정표현
- 가족, 친족 호칭어
- 화법: 격식체, 비격식체, 양태 어미 표현
- 이름 문화
- 외래어 수용 방식

② 한국인의 인간관계

- 남녀 관계
- 노소관계
- 전반적인 인간관계의 특징

③ 한국인의 사고방식 및 성격

- 정
- 예절
- ‘우리’ 의식

④ 한국인의 예절(동작 언어 포함)

- 버스나 지하철의 경로석 양보 문화
- 어른과 술 마실 때
- 담배 피울 때
- 돈이나 물건을 건넬 때
- 식사할 때

- 어른 앞에 앉을 때
- 방문 예절
- 하숙, 자취, 원룸, 오피스텔, 여관, 민박, 펜션 소개
- 호텔 이용하기(예약 포함)

3. 문화 교육 방안

문화교육 방법론은 활동에 따른 방법론, 분야에 따른 방법론, 주제에 따른 방법론, 학습도구에 따른 방법론 등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²⁾

다음은 교재에서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1) 본문 속에서 제시

본문 속에 문화적 함의를 갖는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 명시적인 경우①

- 대화문
 - 존슨: 한국 음식은 보통 맵고 짠데 이걸 그렇지 않군요.
 - 영수: 예, 한국 음식 중에서 맵지 않은 음식도 많아요.

학습자는 이러한 대화문에서 한국 음식의 기본적인 특징(보통 맵고 짜다. 그러나 맵지 않은 음식도 많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나. 명시적인 경우②

- 읽기
 - 한국에서는 식사 중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어른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어른보다 수저를 먼저 들면 안 됩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고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코를 풀면 안 됩니다. 실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 (중략) 식사할 때 국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2) 이에 대하여서는 박영순(2002:33)을 참조할 것.

위의 구문은 한국의 기본적인 식사예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화 정보를 얻게 된다.

다. 비명시적인 경우

존슨: 이 사과는 얼마입니까?

주인: 이건 팔백 원입니다. 그리고 저건 천 원입니다.

존슨: 저 배는 얼마입니까?

주인: 천오백 원입니다.

존슨: 배 두 개하고 사과 다섯 개 주십시오.

주인: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대화를 통해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사과와 배가 한국의 대표적인 과일이다. 과일 값이 대체로 어느 정도이다. 사과보다 배가 보통 더 비싸다.’ 등이 그것이다.

(2) 설명

문화항목을 설정하여 한국어로 또는 학습자 모국어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때 목표어인 한국어와 학습자 모국어의 문화 간의 대조 설명은 더욱 효과적인 문화교육으로 이끈다.

가. 영어로 제시한 예

Subways in Korea

The first subway system in Korea was established in 1974, which linked...

나. 한국어로 설명한 예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한잔 하러 갑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다. 문화 간 대조 설명(예: 독일어와 한국어 대조 설명)

한국 사람은 이름을 부를 때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이름 뒤에 ‘씨’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김유미 씨(Vor-und Nachname+씨)’, 또는 ‘유미 씨(Vorname+씨)’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 씨(Nachname+씨)’라

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부른다면 상당히 무례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예를 들어, 'FrauInge Hoppmann', 'Frau Hoppmann'이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독일어에서는 'Frau/Herr + Nachname'가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김유미 씨(Vor- und Nachname+씨)', '유미 씨(Vorname+씨)', '유미야(Vorname+야)'로 불러야 할까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김유미 씨', '유미 씨', '유미야'로 세분하여 사용합니다. 독일어는 어떨까요?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	독일어
김유미 씨(Nach- und Vorname+씨)	Frau Inge Hoppmann (Frau+Vor- und Nachname), Frau Hoppmann(Frau+Vorname)
유미 씨 (Vorname+씨)	Hoppmann(Nachname)
유미야 (Vorname+아/야)	Inge(Vorname)

(3) 돌출창의 설정(tips) 및 단편적 기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기소개 단원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림 밑에 제시한다.

윗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라는 말과 함께 윗몸을 30도 정도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공손한 태도이다.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한국어 쓰기 초급 교재')

(4) 문화 정보의 제시와 퀴즈

문화 정보를 범주화해서 정리·제시한다. 퀴즈라는 과제활동을 채택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이름을 쓰십시오. (또는 아래 그림 중에서 고르십시오.)

이 음식은 배추와 무로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언제나 이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

(5) 문화정보의 제시와 빈칸 채우기

퀴즈와 유사한 과제의 성격을 지니나 다양한 활동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한국의 계절과 날씨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한국의 계절과 날씨는 여러분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아래의 빈 칸에 써 보십시오.

나라 이름	한국	()
계절 이름		
날씨		
계절 활동		

(6) 문화항목 기술과 역할극

본문과 관련한 문화항목을 기술한 후 역할극을 제시한다면 문화 학습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말하기, 듣기 기술 등 언어 기능의 향상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물건사기를 주제로 할 때 백화점과 시장의 비교는 흥미 있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이후에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사기를 역할극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구체적 지도법

(1) 한국인의 이름

- 학습 단계: 초급
- 준비물: 명함, 비디오
- 지도법:
 - ① ‘소개’라는 단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읽기 자료로 제시한다. 학습자 모국어로 제시해도 좋다.
 - ② 이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함 등을 준비하여 보여 준다.
 - ③ 영화나 드라마 중 처음 만나 소개하며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도 좋다.
 - ④ 읽기 자료의 내용 이해가 끝나면 부교재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시: 문화 캡슐(간단한 읽기 자료로 제시)

〈한국인의 이름〉

한국 사람의 이름은 보통 세 글자입니다. 이름을 쓸 때 성(姓)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이름 뒤에 ‘씨’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김지영 씨’ 또는 ‘지영 씨’라고 부릅니다.

· 학습 활동을 위한 부교재

1. 한국의 성(family name)과 이름

한국 이름

외국 이름

김지영

제임스 본드

2. 여러분은 한국인의 어떤 성과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자 이름	남자 이름

3. 여러분 나라에서 흔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4. 한국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 ‘김지영 씨’ 또는 ‘지영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2) 숫자 4

· 학습 단계: 초급

· 준비물: 엘리베이터 안의 숫자가 F로 된 사진 준비

· 지도법:

- ① ‘수’를 익히는 단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읽기 자료로 제시한다. 학습자 모국어로 제시해도 좋다.
- ②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며 왜 4라는 숫자 대신 다른 것이 써 있는지 묻는다.
- ③ 숫자 4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해 준다.
- ④ 읽기 자료의 내용 이해가 끝나면 부교재를 이용한 Activity를 할 수 있다.

· 제시: 문화 캡슐(간단한 읽기 자료로 제시)

〈숫자 4〉

한국인은 숫자 4를 싫어합니다. 죽음을 뜻하는 ‘사(死)’와 똑같이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물에서는 4층 대신에 F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숫자 4 대신에 F라고 씁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특별히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말이 트이는 한국어 I)

- 학습 활동을 위한 부교재

* 여러분 나라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 좋아하는 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수	이유

싫어하는 수	이유

(3) 한잔 합시다

- 학습 단계: 중급
- 준비물: 그림이나 사진(맥주 잔 부딪치는 사람들, 맥주 집 풍경)
- 지도법:

① 간단한 대화문을 제시하면서 ‘한잔 합시다’라는 표현을 제시한다.

민호: 퇴근 후에 한잔 합시다.

진수: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민호: 회사 뒤 ‘○○호프’라는 맥주 집으로 갑시다.

- ② 위와 같은 예문에서 ‘한잔 합시다’가 무슨 의미인지 학습자들에게 묻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술을 마시러 갑시다.’라는 의미임을 알려 준다.
- ③ 그리고 읽기 자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자 한 명을 지목하여 읽힌다.
- ④ 교사가 다시금 설명을 해 준다.

- 제시: 문화 캡슐(간단한 읽기 자료로 제시)

〈한잔합시다〉

“오늘 저녁 시간이 있습니까? 한잔하러 갑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한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잔’이라는 말은 술을 마실 때 쓰는 술잔,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쓰는 찻잔, 음료수를 마실 때 쓰는 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한잔합시다.”라고 말하면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의 뜻을 몰라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4) 맛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 학습 단계: 중급-상

• 준비물: 신문 기사

• 지도법:

- ① 음식 맛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② 음식 맛을 나타내는 표현이 달리 쓰이고 있음을 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싱거운 사람이다.) 이때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편집하여 보여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 ③ 읽기 자료로 제시된 맛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읽으며 교사가 준비한 부교재에 답을 적게 한다. 이때는 개인 학습보다는 짝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
- ④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통해 실제 쓰임이나 읽기 학습의 일환으로 연계시켜 지도할 수 있다.
- ⑤ 학습자 모국어에서는 맛을 나타내는 표현이 달리 어떻게 쓰이는지 토론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 제시: 문화 캡슐(간단한 읽기 자료로 제시)

“그 사람 어때?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짜?”

‘짜다’라는 말은 음식의 맛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맛을 나타내는 말이 때로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물의 속성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짜다’라는 표현은 음식의 간이 적당한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때, 특히 소금의 맛이 강하게 날 때 ‘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그대로 전이되어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면 ‘짜다’라는 말은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시험 점수에 대해서도 “점수가 왜 이렇게 짜?”라는 말은 점수가 후(厚)하지 않고 박(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짠맛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짜다’ 이외에도 ‘건건하다’, ‘간간하다’, ‘건건찝질하다’, ‘짹짹하다’ 등의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중 ‘짹짹하다’는 ‘짜다’와는 달리 조금 짠듯하지만 그 짠맛이 다소 좋게 느껴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 시작한 일은 잘 돼 가? 수입은 어때?”

“짹짹해.”

‘수입이 짹짹하다’라는 말도 우선 맛에서 주는 의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싱거운 사람이야.”, “달콤한 사랑”, “구수한 이야기”, “썩썩한 기분이야.”, “손이 맵워.” 등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의 뜻을 알 것 같습니까? 맛이 주는 느낌을 안다면 이런 표현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Ⅲ)

• 부교재를 통한 학습활동

1. 맛을 나타내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맛	비유적 표현
짜다	그 사람이 짜다 / 점수가 짜다
짹짹하다	수입이 짹짹하다
싱겁다	싱거운 사람 / 일이 싱겁게 끝나다
달콤하다	달콤한 사랑 / 달콤한 말
구수하다	구수한 이야기 / 구수한 목소리
썩썩하다	썩썩한 기분
맵다	손이 맵다
고소하다	아이 고소해.

(1) A: 그 사람 어때? 괜찮아?

B: 그런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짜?

(2) A: 그 교수님 강의는 유익하고 재미있기는 한데...

B: 그런데?

A: 점수가 짜다고 소문이 났어.

2. 여러분 나라에서는 맛을 나타내는 표현이 달리 어떻게 쓰입니까?

3.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이런 비유적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시다.

(5) 색채어와 관련된 표현

- 학습 단계: 중급-상
- 준비물: 문제지
- 지도법: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서 풀어 본다.

1. A: 벌써 가을이네요.

B: 한국의 **가을 하늘**은 참 (**푸른**, 파릇파릇한, 시퍼런) 것 같아요.

2. A: 한국에서는 추석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B: 송편을 먹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어요.

A: 미나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B: 저는 (셋노랑게, **노릇노릇하게**, 누르스름하게) 잘 부쳐진 **생선전**을 좋아해요.

3. A: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걸 보니 봄이 됐나 봐요.

B: 맞아요. 나무에서도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푸르게, 새파랗게) 돋았어요.

4. (할머니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신다.)

A: 할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B: 어휴, 말도 마라. 지하철에서 (푸르스름하게, **새파랗게**, 푸르게) **젊은 애들**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너무 힘들게 왔다.

5. 골목에서 갑자기 개가 나타나자 아이는 (**새파랗게**, 새빨강게, 하얗게) **질려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다.

6. A: 영민 씨는 돈이 아까워서 자기 생일 파티도 못 한 대요.

B: 정말 (**노랑이**, 빨갱이, 파랑이)군요.

7. A: 민호 씨, 어제 약속장소에 왜 안 나왔어요?

B: 미안해요. 어제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가시는 바람에...

A: 그런 (셋노란, **새빨간**, 새하얀, 새까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다른 여자와 만난 것 다 알고 있어요.

5. 한국인의 민족정서가 반영된 언어 표현

사람은 말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은 말이 없이는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언어는 사고의 도구라고 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즉 세계관을 달리하게 할 수도 있다.³⁾ 또한, 인간의 사고나 그 산물인 문화는 언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언어와 사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우리 민족은 한국말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고, 이 한국말의 구조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여 우리 민족은 대체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⁵⁾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이 공통된 우리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였고, 이 문화가 국어에도 반영되어 국어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언어는 사고를 반영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고를 형성하기도 하는데,⁶⁾ 이 글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반영된 국어 표현들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정서와 언어문화의 관계를 밝히고 국어에 담겨 있는 국어문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서 같은 말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생각의 굽’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공동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민족의 얼’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⁷⁾ 문화는 인류의 오랜동안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유형·무형의 결과물인데, 대개 언어를 통하여 후대에 전달된다. 또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가 담겨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어의 여러 표현 중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나 정신이 반영된 구체적인 표현들을 찾아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민족정서와 언어문화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국어문화를 밝혀보고자 한다.

3) 그 대표적인 주장이 ‘사피어-워프 가설(언어 상대성 가설)’이다.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허웅(1981/1995:47-52) 참조.

4)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즉,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이들의 관계가 절대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국어에 높임법과 높임말이 발달해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특별히 예의가 바르다거나 공손하다고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여러 개의 다른 문화권에 속하고 있으며, 언어가 다른데도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 닭이나 개의 울음소리를 언어마다 달리 표현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동일한 무지개 색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마다 그러한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언어 사용자의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6)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를 밝히는 일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느냐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7) 언어와 민족정신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식민주의 정책에서는 언어 말살 정책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이용한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언어 말살 정책을 폈던 것도 우리말글을 없앴으로써 우리 민족정신마저도 없애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5.1. 친족 관련 지칭어와 호칭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제, 자매에 대한 호칭이 각 언어마다 차이를 보인다.

(1) 형제, 자매에 대한 호칭

한국어	헝가리어	영어	말레이어
형	bàtya	brother	sudarà
오빠			
동생(아우)	öcs	sister	
	hug		
누나	néne		
언니			

특히, 국어에서는 다른 언어와 달리 형제, 자매에 대한 호칭어가 성별이나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화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어는 성별이나 상하 관계의 고려 없이 하나로 통칭되고, 영어는 성별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 상하 관계의 구분이 없다. 헝가리어가 비교적 성별과 상하 관계를 구분하여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국어는 손아래 사람보다 손윗 사람에 대한 호칭어를 더 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충효사상이 근간이 되었던 유교적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위·아래의 수직 관계를 중시하는, 특히 손윗사람을 더 고려하는 우리 민족의 사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국어에는 친족 관련 지칭어와 호칭어가 발달해 있는데,⁸⁾ 이것은 혈연관계와 친족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엄격한 가부장제 아래 혈연관계를 중시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칭어의 사용 방식은 대인 관계를 상하의 서열 관계로 보고, 그에 대한 행동 윤리를 규정하는 유교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언어 현상으로 볼 수 있다(전혜영 1998:241).

- (2) 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당숙 (영어: uncle)
 나. 종형, 종제, 외종, 이종, 고종, 재종 (영어: cousin)
 다. 조카, 생질 (영어: nephew)
 르. 질녀, 생질녀 (영어: niece)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도 영

8)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새국어생활』에 의하면 국어의 친족 관련 호칭어와 지칭어는 약 1,200개가 있다고 한다.

어에 비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서열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와 대가족 문화 등 유교적 사고에 바탕을 둔 문화가 세대 간은 물론 형제 간에도 항렬을 따지는 다양한 지칭어와 호칭어로 나타난 것이다.⁹⁾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형, 언니, 누나, 동생, 아저씨, 아주머니’ 등과 같은 호칭어를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현상이 있다.¹⁰⁾ 이 또한 친족 관계나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정 중심, 인간관계 중심의 우리 문화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반영된 언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어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친근감과 공동체 의식을 획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는 것은 친구와의 인간적 관계를 강조하여 ‘친구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친구는 나와 동기’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의 아버지를 단순히 2인칭 대명사 ‘you’로 부르는 영어의 경우는 친구의 아버지를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호칭어도 영어에서는 늙으나 젊으나, 살아 있으나 죽으나, 나의 쪽이나 너의 쪽이나 관계없이 모두 ‘father(유아어: dady)’가 쓰인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나의 살아 있는 아버지나 돌아가신 아버지나, 또 남의 살아 있는 아버지나 돌아가신 아버지나에 따라 50여 개 가까운 다른 말로 사용되어 왔다.

(3) ‘아버지’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 ㄱ. 나의 살아 있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배, 아비, 어른, 바깥어른, 밧어른, 부(父), 부친(父親), 가친(家親), 가군(家君), 가엄(家嚴), 가부(家父), 가대인(家大人), 부주(父主), 아부(阿父), 엄친(嚴親), 엄군(嚴君), 부군(父君)
- ㄴ.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고(考), 부고(父考), 현고(顯考), 선친(先親), 선고(先考), 선인(先人), 선군(先君), 망부(亡父), 선부군(先父君)
- ㄷ. 남의 살아 있는 아버지: 아버님, 어른, 바깥어른, 대인(大人), 춘부장(椿府丈), 영존(令尊), 춘당(椿堂), 춘부대인(椿府大人), 춘정(椿庭), 춘부(椿府), 춘장(椿丈), 아범, 애비
- ㄹ.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 선대인(先大人), 선인(先人), 선장(先丈), 선고장(先考丈), 황고(皇考)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사회 단위이자 경제 단위이기도 했다. 농사일이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하고, 집단 노동 시 노동력을 통솔할 대표자가 필요했다. 이 역할

9) 그 밖에도 삼촌, 사촌,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서, 형부, 처제, 처형 등 모든 혈연 관계를 지칭어나 호칭어로 표현할 수 있다.

10) 상점의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아가씨나 아주머니/아줌마라고 하면 불쾌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을 맡은 것이 가장인 아버지였고, 이 권한을 가진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이처럼 한국인은 아버지라는 실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말에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5.2. 높임법과 높임말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혈연을 토대로 한 가족 관계를 중시했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나이에 따른 상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화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말보다 높임법이 더 발달해 있다.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주체, 객체, 그리고 듣는 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듣는 사람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으로 나뉜다.

(4) 국어의 높임법

- ㄱ. 주체높임: 그 분께서는 매우 훌륭하시다.
- ㄴ. 상대높임: 아버님, 진지 드세요.
- ㄷ. 객체높임: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국어에서는 이처럼 높임법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나(화자)와 상대방(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결어미를 선택해야 하고, 문장의 주체나 객체 등을 고려하여 높일 것인지 높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발화를 해야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예(禮)와 효(孝)를 중시했던 전통적 사고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어른을 우대하는 문화적 풍토가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어에서는 이러한 높임법의 발달과 함께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들이 발달하였다.

- (5) ㄱ. 밥 : 진지, 늙은이 : 노인, 나이 : 연세, 생일 : 생신, 아들 : 아드님, 집 : 댁, 술 : 약주, ...
- ㄴ. (처먹다) : 먹다 : 잡수시다, 있다 : 계시다, 자다 : 주무시다, 주다 : 드리다, 데리다 : 모시다, ...

5.3. 남성 중심, 남녀 차별의 표현

농경이 중심이 된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보다 힘이 센 남자가 중요한 노동력의 밑천이 된다는 점에서 남자를 선호하였다.¹¹⁾ 이런 배경에서 시작한 남성 중심의 문화나 가부장제 및 봉건적 윤리관이

11) 원래 인류 최초의 원시공동체는 모계 사회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성이 경제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반영되어 남녀 표현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 여자를 나타내는 말보다 앞에 나타난다. 이것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ㄱ. 남녀, 부모, 자녀, 아들딸, 부부(夫婦), 오누이, 소년 소녀, 신랑 신부, 장인 장모, 신사 숙녀 여러분! (영어: Ladies and gentlemen!)

ㄴ. 모자(母子), 처자(妻子)

(7) ㄱ. 할아버지 : 외할아버지, 삼촌 : 외삼촌, 사촌 : 외사촌

ㄴ. 교수 : 여교수, 의사 : 여의사, 작가 : 여류 작가, 사장 : 여사장, ...

(8) ㄱ. 자식이 둘입니다.

ㄴ. 여식이 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언어 표현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¹²⁾ 남자를 앞세워 표현한다. 우리말은 합성어나 구를 만들 때,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앞에 위치시키는데,¹³⁾ (6ㄱ)은 남성을 더 중시하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ㄴ)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보다 어머니를 앞세우고, 아내를 앞세운 언어 표현은 남녀 구별보다 상하 구별을 더 중시하는 문화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고 경향은 (7)과 같은 무표항(無標項)과 유표항(有標項)의 언어 대립에서도 확인된다.¹⁴⁾ (7ㄱ)에서 친가쪽 호칭에는 아무런 언어 표지가 붙지 않지만 외가쪽 호칭에 ‘외-’라는 언어 표지가 덧붙는 것은 외가보다 친가를 더 중시하는 문화의 반영이며,¹⁵⁾ (7ㄴ)에서 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지가 붙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서 ‘여-’라는 언어 표지가 붙는 것은 여성의 사회생활을 특별한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8ㄱ)처럼 표현하면 그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8ㄴ)처럼 표현하면 그때는 여자가 둘이라는 뜻이 된다.¹⁶⁾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일까지 도맡아 했다. 그 후 농경과 목축이 중심이 된 부족사회로 바뀌면서 남성이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12) ‘연놈, 어미아비, 가시버시(아내와 남편), 비복(婢僕)’에서는 다른 말과는 달리 남성을 나타내는 말보다 여성을 나타내는 말이 먼저 나온다. 이 말들은 모두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암수, 자웅(雌雄)’과 같이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서도 여성이 앞선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에는 남성을 먼저 내세우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거나 미물(微物)인 경우에는 대체로 여성을 나타내는 말을 앞세운다.

13) 일월(日月), 대소(大小), 강약(強弱), 상벌(賞罰), 선악(善惡), 손발, 높낮이, 옳고 그름 등

14) 언어에는 무표항과 유표항의 대립이 있다. 무표항은 기본적인 것, 일반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서 언어 형태상으로 특별한 장치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것이며, 유표항은 특별한 것, 예외적인 것, 희박한 것으로서 언어 형태상으로 기본형에 다 특별한 언어적 장치를 덧붙여서 나타낸다.

15) 최근에는 외할머니를 ‘할머니’라 불러 무표항으로 처리하고 오히려 친할머니를 ‘친할머니’라 불러 유표항으로 처리하는, 무표항과 유표항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육아 등 처가 중심의 친척 관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6) 또한 ‘청소년’이라는 말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할 수 있어서 적격하게 사용되지만, ‘청소녀’에는 그렇지 못하여

남성이 인간의 기본형이며 여성은 특수한 경우로 보는 의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9) ㄱ. 집사람, 안사람 (남편: 바깥양반)

ㄴ. 미망인(未亡人)

ㄷ.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10) ㄱ. 남자니까 네가 참아라.

ㄴ. 여자니까 네가 참아라.

(9)는 전통적으로 아내의 역할을 규정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다. ‘집사람, 안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 또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말에는 아내는 집 또는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는 식의 남성 중심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계 혈통을 인정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성의 위치는 절대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남존여비의 남성우월주의 사고로 노동 분담에서도 밖에서의 노동은 남성이 담당하고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이다. 미망인(未亡人)은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자라는 뜻으로 홀로된 여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또한, 오랜 세월을 걸쳐 민중의 공감을 얻어 생겨난 역사적, 사회적 결과물인 속담 가운데에도 남녀 차별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¹⁷⁾

(10)의 두 발화는 우리의 언어 현실에서는 그 내포하는 의미가 현저히 다르다. (10ㄱ)은 ‘남자는 우월한 존재니까 그만한 일은 남자인 네가 참아야 한다.’ 즉 참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10ㄴ)은 ‘여자는 열등한 존재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 즉 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의 뜻을 담고 있다.¹⁸⁾

5.4. 복수 표현

국어에서는 1인칭 단수 ‘나’에 대응하는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우리’가 단순적인 상황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11) ㄱ. 국어: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나라, ...

ㄴ. 영어: my school, my house, my mother, my nation, ...

사용되지 않는다.

17) 속담에 나타난 남성 중심 또는 남녀 차별의식과 같은 국어문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18) 그 밖에 이름짓기에서 남자는 대부분 향렬의 돌림자에 따라 이름을 짓지만 여자는 대부분 향렬을 고려하지 않고 이름을 지으며 족보에도 정식으로 오르지 못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의 관념이 반영된 현상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우리’의 쓰임을 ‘우리’의 꾸밈을 받는 말이 가족이나 구성원들의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아닌 ‘우리’의 선택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마누라, 우리 애인’ 등에서는 반드시 일인칭 단수 소유격을 써야 하는 상황임에도 ‘우리’가 쓰인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만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어에서 ‘나’가 쓰여야 할 자리에 ‘우리’가 흔히 쓰이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정서에 혈연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나 집단 의식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정(情)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보다는 집단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농업 중심의 사회를 이루면서 농번기에는 자신의 가족만으로는 노동력을 충당하기 어려워 이웃과 함께 노동력을 공유하면서 살았는데, 이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가 더 강조되었고, 그런 의식 속에서 관습적으로 ‘나’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이 널리 쓰여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윗사람 앞에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저’나 ‘저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겸양의 미덕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영어권의 정서에는 개인주의나 주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we’가 아닌 ‘my’를 즐겨 사용한다.

그리고 국어에는 복수 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들’이 사용된다. 그러나 복수 표현에 꼭 ‘-들’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2) ㄱ. 참새 세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다.
- ㄴ. 참새 세 마리들이 전깃줄에 앉아 있다.

이처럼 복수로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들’을 붙이지 않고 표현하여 수 개념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수 개념이 희박한 것은 우리말의 특질 중의 하나이다. 국어에서는 영어에서처럼 복수나 단수가 문법상 아무런 기능도 요구하지 않는다.

5.5. 어감의 분화

국어에는 모음이나 자음의 교체에 의한 어감의 분화 현상이 있다. 음운은 형태소를 분화함으로써 뜻을 구별해 주는데 음운이 일부 바뀌었지만, 단어 자체가 완전히 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감(語感)만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어감의 분화는 의성 부사와 의태 부사에서 주로 나타난다.

- (13) ㄱ. 달랑달랑 / 딸랑딸랑 / 떨렁떨렁 / 탈랑탈랑 / 털렁털렁 ; 단단하다 / 뚱뚱하다 / 탄탄하다
 ; 감감하다 / 깜깜하다 / 캄캄하다 ; 껌껌하다 / 컴컴하다
- ㄴ. 졸졸 / 줄줄 / 찰찰 / 절절 / 철철 / 출출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그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또한, 양성모음은 밝고 날카롭거나 작고 가벼운 느낌을 주고, 음성모음은 어둡고 둔하거나 크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국어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의해 양감과 질감의 미묘한 차이를 정밀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국어에는 음성 상징에 의한 상징어(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이것은 음성(音相)에 의한 어감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4) ㄱ. 번지르르-뽀지르르, 싱글싱글-쌍글쌍글, 엉금엉금-엷금엷금

ㄴ. 풍당풍당-풍덩풍덩, 도란도란-두런두런 ; 아장아장-어정어정, 출랑출랑-출렁출렁, 살랑살랑-설렁설렁, 오목오목-우묵우묵, 알록달록-얼룩덜룩, 달달-들들

(15) ㄱ. (물이) 졸졸-줄줄-절절-질질-찰찰-촛촛-촛촛-찰찰-철철-찰찰

ㄴ. (벌레가) 구물구물-곰실곰실-곰질곰질-곰적곰적-구무적구무적-곰지력곰지력

가장 사실성이 강조되어야 할 의성어나 의성어에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민족적인 정서를 국어문화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아주 미묘한 차이도 쉽게 넘기지 않고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전달하고자 하는 우리네의 표현력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상태나 상황의 미세한 차이도 예리하게 통찰해내는 우리 민족의 인식체계와 뛰어난 표현력을 확인할 수 있다.

5.6. 감각어

국어에는 미묘한 정감을 표현하는 감각어(感覺語)가 발달해 있다. 다음 자료는 각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따른 감각어의 한 보기이다.

(16) ㄱ. 검다, 가말다, 거멍다, 까말다, 꺼멍다, 새까말다, 시꺼멍다, 새카말다, 시커멍다, 가무끄름하다, 거무끄름하다, 가무레하다, 거무레하다, 가무속속하다, 거무속속하다, 가무스름하다, 거무스름하다, 가무잡잡하다, 거무접접하다, 가무칙칙하다, 가무퇴퇴하다, 거무튀튀하다, 검붉다, 검푸르다, 검파랗다, 검퍼렇다, 감노르다, 감노랗다, 감노르다, 감노랗다, 검누르다, 검누렇다, …

ㄴ. 소곤소곤-수군수군, 도란도란-두런두런, 종알종알-중얼중얼, 사분사분, …

ㄷ. 괴괴하다, 퀴퀴하다, 쿠리다, …

ㄹ. 달다, 달콤하다, 달끔하다, 달곰하다, 달금하다, 달곰삼삼하다, 달콤새금하다, 달콤새금하다, 달콤쌉쌀하다, 달콤쌉쌀하다, 달달하다, 달짝지근하다, 달착지근하다, …

ㄹ. 따뜻하다, 뜨뜻하다, 다사하다, 다스하다, 따사하다, 따스하다, 다사롭다, 따사롭다, 다습다, 드습다, 따습다, 따끈하다, 뜨끈하다, …

이러한 감각어들은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어휘라기보다는 음상의 차이에 의해 미묘한 정감을 표현하려는 우리 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이었으며,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민족성을 지니고 있었다.¹⁹⁾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자체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주관적 느낌이나 정서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민족성으로 말미암아 감각적인 표현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감각어가 국어에 발달하였고 할 수 있다. 특히 색채어의 발달은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섬세한 감각과 풍부한 감정이 담긴 국어문화이다.

또한, 이러한 감각어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사람의 특징을 표현할 때 ‘짜다, 싱겁다, 무겁다, 가볍다’ 등 비유적 용법으로 전용되어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17) 가. 그 사람 참 싱겁기는.

나. 그 사람은 입이 무거워서 민음이 가.

위와 같이 실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언행이 신중한 사람을 가리킬 때 ‘싱겁다, 무겁다’와 같은 감각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특성을 감각적인 사고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5.7. 금기어, 완곡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불결하거나 위험하거나 무서운 것이어서 혐오의 대상인 경우가 있다. 이런 말들은 그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게 되는데 이런 말들을 금기어(禁忌語)라 한다. 또한, 이런 금기어들이 지니는 혐오의 느낌을 지우고자 듣기 좋은 다른 말로 대체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말들을 완곡어(婉曲語)라 한다.

(18) 똥 → 大便, 오줌 → 小便, 변소 → 화장실(化粧室)/뒹간/해우소(解憂所), 천연두 → 마마/손님/손님마마/큰손님, 쥐 → 서생원/아기네/며느리/액씨님, 호랑이 → 산신령/사또/영감/꽃, 뱀 → 업/지킴/긴짐승, …

19)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부여조(夫餘條), 고구려조(高句麗條), 예조(濊條), 마한조(馬韓條) 등에는 우리 민족이 낙천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그 가운데 고구려조(高句麗條)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歌戲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고구려 백성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하여, 나라 안의 모든 읍과 촌락에서는 밤이 되면, 많은 남녀가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즐겨 논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온 나라 안 사람들이 크게 모이는데 그것을 동맹이라 한다.)”

- (19) 죽다 → 돌아가시다, 세상을 뜨다, 손가락을 놓다, 작고(作故)하다, 운명(殞命)하다, 영면(永眠)하다, 서거(逝去)하다, ...
- (20) (예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할머니가) 고놈 참 밉게도 생겼네.

(18), (19)에서 보는 것처럼 불결한 것, 위험한 것, 무서운 것 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에서 반사적 의미가 파악되므로 이런 것들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 국어에 발달하였다.²⁰⁾ 특히 (19)에서와 같이 죽음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인 ‘死’가 ‘사’로 발음되기 때문에 숫자 사용에서 ‘四’를 회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빌딩의 호수를 나타낼 때 4층을 빼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영어권에서 ‘13’이라는 숫자를 금기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문화적 특수성이 그들의 언어 사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예쁜 아이는 귀신이 시샘하여 일찍 데려간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쁘다고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여 왔다. 그래서 (20)과 같이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을 써 왔다. 만약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아는 엄마라면 위의 발화에 대해 흡족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지만, 이를 모르는 젊은 세대이거나 외국인이었다면 표현된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여 오히려 불쾌해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 표현의 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과 풍부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5.8. 어순

국어의 문장 구조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문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서술어가 문장의 맨 뒤에 오는 미괄식 문장 구조(도미문)를 갖고 있다.²²⁾ 이러한 문장 구조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서술어가 뒤에 놓임으로 해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청자를 끝까지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자의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들을 기회를 빼앗긴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말 문장 구조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긍정과 부정이 뒤바뀌는 등의 중요한 정보가 뒤에 오기 때문에 앞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다.²³⁾

20) 반사적 의미(반영적 의미, reflected meaning): 어떤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말이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의미

21) 일상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담은 금기담(禁忌談)에도 우리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22) 뒷부분에 중심이 놓이는 문장 구조는 겹문장에서도 확인되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라.”처럼 종속절이 앞에 오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주절이 뒤에 온다. 또한, “아주 착한 다미는 예쁜 새를 매우 정성껏 기른다.”에서 보는 것처럼 ‘수식어-피수식어’ 구조로 중요한 내용이 뒤에 드러난다.

23)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놓이는 어순 상의 특징으로 인해 부정이나 시제 표현 같은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요소들도 문장의 끝에 놓이게 된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21) 똑똑하고 귀엽고 상냥한 그녀는 매우 게으르다.

국어의 이러한 어순상의 특징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발전해 가는 순리적 사고 유형을 형성하며, 주변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분위기를 고조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어 절정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낳는다.²⁴⁾ 또한, 청자를 의식하는 이러한 조심성 있는 표현 방식은 결정적인 중요한 정보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줌으로써 청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주변적인 사항을 길게 말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빠뜨림으로써 중심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사고 유형을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이나 결정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신속한 일 처리에도 비능률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인구어는 서술어가 앞쪽에 놓이는 산열문의 어순을 가지고 있어서 청자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5.9. 부정 의문문

국어에서는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 긍정과 부정의 대답 기준이 질문자(상대방)의 긍정 또는 부정의 질문에 의지하여 응답자의 긍정과 부정의 대답이 선택된다.

(22) ㄱ. 너 배고프지 않니?

ㄴ. 응, 배 안 고파. / 아니, 배고파.

(23) ㄱ. Aren't you hungry?

ㄴ. No, I'm not. / Yes, I am.

이처럼 국어에서는 질문자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 대답이 선택되어 긍정의 대답 ‘예/응’은 질문자의 물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고, 영어의 ‘Yes’는 응답자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 대답이 선택되어 사실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는 담화 상황에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정서가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로 보아 국어는 사람 중심의 언어라 한다면 영어는 사물 중심의 언어라 할 수 있다.

24) 이러한 어순 상의 특징은 우리의 말하기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대개는 처음에는 주변의 일, 구체적인 일화나 사례부터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내용이나 결론을 뒤에 표현하는 방식을 택한다. 시조나 가사와 같은 선인들의 문학 작품에서도 대부분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으로 대상을 표현한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귀납적 서술 방식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5.10. 필수 성분의 생략

국어에서는 아무리 필수적인 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라 하더라도 실제 담화에서는 말하는 이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필수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 | | |
|----------------------------|---------------|
| (24) ㄱ. 다미는 뭐 하니? 노래한다. | (주어 생략) |
| ㄴ. 누가 노래하지? 다미. | (서술어 생략) |
| (25) ㄱ. 다영이가 먹는 것이 뭐냐? 사과. | (주어, 서술어 생략) |
| ㄴ. 사과를 먹는 아이가 누구냐? 다영이. | (목적어, 서술어 생략) |
| (26) ㄱ. 지우는 무엇이 됐니? 교사. | (주어, 서술어 생략) |
| ㄴ. 누가 교사가 됐니? 지우. | (보어, 서술어 생략) |

이러한 필수 성분의 생략 현상은 담화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담화가 장면이나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담화에서는 표현하려고 하는 정보가 장면이나 맥락의 도움을 받아 전달될 수 있거나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정보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인 화자와 청자 상호 간의 공통된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우리말에서 성분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말이 장면(언어 외적 장면과 언어 내적 장면인 맥락)에의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언어의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적인 정보만을 제시함으로써 표현과 이해의 측면에서 정보 처리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략 현상은 함축미와 은근한 맛을 드러내게 되며, 둥글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사고를 반영하며, 아름다운 정서와 시적 감흥을 지닌 우리의 민족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생략으로 말미암아 논리적 비약이나 부정확한 의사소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사리 판단이나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5.11.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표현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느낌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거나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27) ㄱ. 그가 좋아.
 ㄴ. 왜?
 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좋아.
- (28) ㄱ. 뭐 먹을래?
 ㄴ. 아무거나.

이는 경쟁보다는 정을 나누며 살았던 농경 생활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말씨를 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어에서는 표현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두루뭇술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 (29) 가. (얼마나 가야 합니까?) 조금만 가면 돼요.
- 나.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 다. 지갑에 돈이 얼마 없다.
- 리. 이따가 보자. / 나중에 보자.
- 미. 곧 연락할게.

이는 대상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언어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수사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두루뭇술하게 표현한다.

- (30) 가. 두 서너 개, 대여섯 개, 두어 시간
- 나. 눈곱만큼, 쥐꼬리만한, 집채만한, 고래등만한

또한, 국어의 시간 표현은 영어처럼 시제가 명확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국어에서는 일이 이미 일어난 실현 인식과, 추측이나 가능성, 능력 등과 같은 미실현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술어 사이에 시제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나타난다.

- (31) 운동장에서 철수는 축구를 하고, 영식은 야구를 하고, 명호는 배구를 하고 있더라.

한 문장에서 서술어가 여럿일 때 맨 끝의 서술어에만 시제 표시를 하고 있다. 이는 국어 사용자가 시간적 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 밖에도 우리의 민족정서가 나타난 언어적 표현들은 많이 발견된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벼농사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벼 관련 어휘들이 발달해 있고, 또한 농경문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농업 관련 어휘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²⁵⁾ 또한, 우리 민족의 쌍방향적 사고

25) 문화의 차이에 의한 어휘 분화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군도의 이푸게오 언어에는 20가지의 쌀 이름이 있고, 페루의 인디언들은 감자가 주식이기 때문에 감자에 대해 오십 개 이상의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아프리카 사막의 유목민들은 낙타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낙타에 관해 열 개 이상의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랍어에는 낙타와 관련된 말이 수천 단어나 있다고 한다. 또한, 에스키모 어에서는 내리고 있는 눈(quna), 땅에 쌓여 있는 눈(aput), 바람에 밀려 가고 있는 눈(piqsirpoq), 바람에 날려 쌓여 있는 눈더미(qimuqsuq) 등 눈과 관련된 20여

의 반영으로 ‘나들이, 승강기(升降機, elevator)’와 같은 어휘들이 발달해 있고, 우리의 사회 구조나 제도와 관련되어 형성된 ‘양반(兩班), 장가(丈家) 들다’와 같은 말이 있다. 그리고 국어에는 ‘좋아 죽겠다.’와 같은 극단적 어휘의 선택으로 감정표현을 극대화시키려는 표현이 발달해 있고, ‘식사하셨어요?’와 같이 가난했던 생활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 또, 직접 명령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합시다.’와 같이 제안하는 형식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는 간접 표현법이 발달해 있고, ‘새가 운다.’(영어: 새가 노래한다.)처럼 비관적 사고가 반영된 표현이 있으며, (민족적) 자신감의 결여에서 ‘~ 같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민족정서가 반영된 국어 표현들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정서와 언어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국어문화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언어의 구조나 체계는 정신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쓰는 언어의 구조에 이끌려 세계를 보는 눈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민족(겨레)은 공통된 말 즉 한국말을 머릿속에 갈무리하고 있다. 이 한국말의 구조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여 우리 민족은 대체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공통된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였고, 이 문화가 국어에도 반영되어 국어문화를 형성하였다. 우리 민족은 한국어로 인하여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융합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민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에 머물지 않고 민족정신을 담는 그릇인 것이다. 즉,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세계관을 담고 있다. 우리가 우리말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말을 통해 문화적 전통을 습득하고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 되며, 정서적으로 민족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정신과 언어문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우리의 국어문화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습자에게 언어가 쓰이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시킴으로써 학습 의욕을 북돋울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의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둬 의사소통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종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 서구 유목 민족은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양이나 말과 같은 가축에 관련된 어휘가 세분화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 언어는 소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 16가지나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한국문화 관련 어휘²⁶⁾

가래떡	고춧가루	나막신(Namaksin)
가루비누	곰국(Gomguk)	나무아미타불
가마(Gama)	곶감	나물(Namul)
가마니	곶감(Gotgam)	나발(Nabal)
가마솥	관리비	나이트클럽
가야금(Gayageum)	교도소	나전칠기(Najeonchilgi)
가정부	교통경찰	남대문
간장(Ganjang)	교회	냉면(Naengmyeon)
갈비(Galbi)	구급차	넬뛰기 (Neolttwigi)
갈비탕(Galbitang)	국(Guk)	노래방
갯(Gat)	국밥(Gukbap)	노리개(Norigae)
강강술래(Ganggangsullae)	국수(Guksu)	노트북
강정(Gangjeong)	국악(Gugak)	녹음기
개량한복	국제전화	농악(Nongak)
개장국(Gaejangguk)	굿(Gut)	누룽지 (Nurungji)
개천절	권장소비자 가격	다가구
거문고(Geomungo)	귀신(Gwisin)	다듬이질 (Dadeumijil)
경복궁	그네뛰기 (Geunettwigi)	다리밟기 (Daribapgi)
계(Gye)	금줄(Geumjul)	단군(Dangun)
고름(Goreum)	기획상품	단무지
고무신(Gomusin)	김밥(Gimbap)	단소(Danso)
고무장갑	김장(Gimjang)	단오(Dano)
고사(Gosa)	김치(Gimchi)	단청(Dancheong)
고속도로	김치찌개(Gimchijjigae)	단풍
고속버스	까치 (Kkachi)	대금(Daegung)
고속철도	깍두기 (Kkakdugi)	대님(Daenim)
고싸움(Gossaum)	팽과리 (Kkwaenggwari)	대목
고추장(Gochujang)	나룻배	대보름(Daeboreum)

26) 국립국어원, '우리 문화 길라잡이' 참조

대중가요	매운탕(Maeuntang)	보증금
대청(Daechyeong)	맷돌(Maetdol)	보통우편
댕기(Daenggi)	메주(Meju)	복날(Bongnal)
덕수궁	명절	복덕방
도깨비(Dokkaebi)	모시(Mosi)	복조리(Bokjori)
독(Dok)	목욕탕	봉지
돌(Dol)	묘지	부가가치세
돌잔치	무궁화(Mugunghwa)	부동산
돌하르방(Dolhareubang)	무당(Mudang)	부럼(Bureom)
돛자리	묵(Muk)	부익금
동대문	물레방아(Mullebanga)	부채(Buchae)
동동주(Dongdongju)	미숫가루(Misutgaru)	부채춤(Buchaechum)
동방예의지국	미역국(Miyeokguk)	북(Buk)
동정(Dongjeong)	민박	불고기(Bulgogi)
동지(Dongji)	민속촌	불교
동창회	민요(Minyo)	뷔페
동치미(Dongchimi)	바둑(Baduk)	비녀(Binyeo)
된장(Doenjang)	바지(Baji)	비디오방
된장찌개(Doenjangjigae)	반찬(Banchan)	비빔밥(Bibimbap)
두루마기(Durumagi)	밥(Bap)	빈대떡(Bindaetteok)
두부(Dubu)	밥상	빌라
떡(Tteok)	백김치(Baekgimchi)	사군자(Sagunja)
떡국(Tteokguk)	백설기(Baekseolgi)	사랑방(Sarangbang)
떡볶이(Tteokbokki)	백일(Baegil)	사립문
뚝배기(Ttukbaegi)	백자(Baekja)	사물놀이(Samullori)
띠(Tti)	백화점	사주(Saju)
마고자(Magoja)	버선(Beoseon)	사주팔자
마늘	버스카드	산신령(Sansillyeong)
마을버스	베(Be)	살문(Salmun)
막걸리(Makgeolli)	병풍(Byeongpung)	살풀이춤(Salpurichum)
만두(Mandu)	보리차	삼겹살
만원버스	보신탕	삼계탕(Samgyetang)
매듭(Maedeup)	보자기(Bojagi)	삼신할머니(Samsinhalmeoni)

삼일장	시조(Sijo)	원룸
삿갓(Satgat)	시청	유행가
상(Sang)	식혜(Sikhye)	웃놀이(Yunnori)
상추쌈	신랑	은장도(Eunjangdo)
상투(Sangtu)	신주(Sinju)	이쑤시개
상품권	신혼	인삼(Insam)
생맥주	쌈(Ssam)	인절미(Injeolmi)
생수	쌍화탕	일식집
서낭당(Seonangdang)	씨름(Ssireum)	장가
서당(Seodang)	아니리(Aniri)	장구(Janggu)
서예(Seoye)	아리랑(Arirang)	장기(Janggi)
서원(Seowon)	아파트	장독대(Jangdokdae)
선비(Seonbi)	안방(Anbang)	장마철
설날(Seollal)	애국가(Aegukga)	장승(Jangseung)
설렁탕(Seolleongtang)	약과(Yakgwa)	장아찌(Jangajji)
성묘(Seongmyo)	약식(Yaksik)	장옷(Jangot)
세배(Sebae)	양반(Yangban)	재봉틀
세일	양식집	저고리(Jeogori)
소고(Sogo)	양주	전(Jeon)
소주(Soju)	여권	절(Jeol)
소풍	연날리기(Yeonnalligi)	절구(Jeolgu)
솃대(Sotdae)	연예인	절편(Jeolpyeon)
송편(Songpyeon)	연하장	점(Jeom)
쇼핑	옛(Yeot)	젓갈(Jeotgal)
수저(Sujeo)	예배	정자(Jeongja)
수정괘(Sujeonggwa)	오곡밥(Ogokbap)	제기차기(Jegichagi)
수제비(Sujebi)	옥수수차	제사(Jesa)
수퍼마켓	온돌	족두리(Jokduri)
순두부	온천	족보(Jokbo)
송늡(Sungnyung)	요정	종묘제례악(Jongmyo jeryeak)
솃불	웃돈	좌석버스
승무(Seungmu)	웃통	주민등록증
시동생	원두막	주택

죽(Juk)	칠석(Chilseok)	한글(Hangeul)
줄다리기(Juldarigi)	칠순	한류
줄타기(Jultagi)	칼국수(Kalguksu)	한복(Hanbok)
중국집	콜택시	한식(Hansik)
중형택시	콩나물(Kongnamul)	한옥(Hanok)
쥐불놀이(Jwibullori)	퀵서비스	한 의사
지게(Jige)	키(Ki)	한지(Hanji)
지하철	탈(Tal)	할인매장
진돗개(Jindotgae)	탈춤(Talchum)	합승
징(Jing)	탕(Tang)	항아리
징검다리	태권도(Taegwondo)	해장국(Haejangguk)
잡신(Jipsin)	태극(Taeguek)	해태(Haetae)
찌개(Jjigae)	태극기(Taeguekgi)	핸드폰(휴대폰)
차전놀이(Chajeonori)	태평소(Taepyeongso)	향가(Hyangga)
chapssal-tteok	택배	향교(Hyanggyo)
창(Chang)	탤런트	현모양처
창경원	터미널	훈수
책거리(Chaekgeori)	터주(Teaju)	홈쇼핑
처가	테입	홍살문(Hongsalmun)
처남	텔레비전	화각(Hwagak)
처마	토정비결	화문석(Hwamunseok)
첩	통근버스	화투(Hwatu)
청사초롱	투호(Tuho)	환갑
(Cheongsachorong)	통소(Tungso)	환병
청자(Cheongja)	팁(봉사료)	회(Hoe)
청주(Cheongju)	파티	휴전선
청첩장	판소리(Pansori)	
초가집	팔자	
초인종	팔자걸음	
총각	팽이치기(Paengichigi)	
추석(Chuseok)	프로그램	
축의금	피리(Piri)	
치마(Chima)	하회탈(Hahoetal)	

참고문헌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3, 서울사대국어교육연구소3.
- 김대행 외3(2001),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교학사.
- 김대행 외3(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 김인회 외(2002), "외국인과 해외교포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국학연구원-언어교육연구원 협동 연구.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제10호, 한글학회.
- 김흥규·이관규·심상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천재교육.
- 김흥규·이관규·심상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 박갑수·정재찬·심영택(2001), *고등학교 국어생활-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 박갑수·정재찬·심영택(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지학사.
- 박영순(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6), *A Cultural Perspective on Korean Language*, *한국말교육* 제7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손호민(1991), "Sociolinguistic and Pragmatic Appropriateness in Proficiency-Oriented Korean Language Instruction", <이중언어학회지> 8.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삼형 외3(2001), *고등학교 국어 생활-교사용 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이삼형 외3(2002), *고등학교 국어 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이정희(1999),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장연희(1988), "외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 논문*.
- 전혜영(1998),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와 한국인*, 국제한국학회, 사계절.
- 조창환(1996), 한국어 교육과 연계된 한국 문화 소개 방안, *한국말교육* 제7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상미(1999),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재영 외(2002), "한국어 교육 총서2 「한국어 교수법」 개발 최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 추진위원회.
- 허웅(1981/1995), *언어학-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 Werner Sasse(1996), "Teaching Korean Culture through Korean Studies-Creating Myths to Live By-", <파리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¹⁾

김형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문법 교육의 의의

외국어 교수 학습 이론의 발달과 함께 문법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 왔다. 문법을 이해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학습자들, 반대로 문법 형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존재는 과연 언어 학습에서 문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하게 했다. 어린이들처럼 다양한 언어 상황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실제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문법 규칙의 학습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와 성인 학습자들은 문법을 알지 못하면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성인들이 자신의 외국어 학습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목표에 집중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의사소통 상황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언어를 학습하기를 희망한다. 단순히 실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를 익힌 학습자들이 유창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오류를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도 문법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과제 기반 학습을 주장해 온 학자들 사이에서도 문법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중심 수업 및 과제 해결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문법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고(noticing), 문법 형태에 초점을 맞추

1) 이 단원은 방성원(2004),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자료(국립국어원)를 정리한 것이다.

어 활동하는 방법(focus on form)들이 개발되고 있다. 즉 문법 학습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의미 중심 수업 또는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 문법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 자연스럽게 문법 학습을 통합함으로써 학습자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은 문법 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언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의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문법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전통적인 문법 교육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문법 중심 교육은 문법이 언어를 발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간과하고 단지 문법의 이해와 기계적인 문장 생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문법은 그 자체가 학습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즉 문법 교육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며, 문법 수업의 최종 단계는 규칙의 적용, 문장의 생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문법 교육의 내용

전통적으로 문법을 가르칠 때 교사는 문법 형태가 사용되는 규칙, 형태가 나타내는 의미를 중심으로 가르쳐 왔으나 최근에는 문법 형태나 문법 구조가 의사소통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법의 내용이 되는 형식, 규칙,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문법의 내용

① 문법 형식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형태소 단위부터 관용적인 복합 표현, 문형까지 다양한 형식들이 발견된다.

- 형태소: ‘-(으)ㄴ’, ‘-는’, ‘-(으)ㄹ’, ‘-고’, ‘-아/어서’, ‘-는데’, ‘-지만’
- 복합 표현: ‘-(으)ㄹ 거예요’, ‘-는 대로’, ‘-(으)ㄹ 테니까’, ‘-기는 하지만’, ‘-(으)로 인해서’
- 문형: ‘-다고 해서 -는 것은 아니다’, ‘-는 걸 보니까 -는 모양이다’, ‘-(이)라고는 -뿐이다’

복합 표현, 문형 등의 문법 요소는 국어학이나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문법 요소와 사뭇 다르다.

이러한 형식들이 문법에 포함된 이유는 분석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법 형식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즉 ‘-(으)ㄴ 거예요’처럼 여러 형태소가 결합되었지만 단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거나 ‘-다고 해서 -는 것은 아니다’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항상 일정한 구조로 제약되는 경우에는 덩어리째 학습시키는 것이 언어 학습에 유용한 것으로 보아 한꺼번에 묶어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문법과 의미

문법은 형식이 전달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한국어는 조사, 어미가 매우 발달한 언어로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문법적·형식적인 의미는 물론, 어휘적·실질적인 의미,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까지 다양한 의미가 문법 형식을 통해 전달된다. 중·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학습 문법 중에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이 많아진다.

- 형식적 의미
 - ‘이/가’ : 주격을 나타낸다.
 - ‘-았/었-’ :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느냐/습니까’ : 의문으로 끝맺음을 나타낸다.
- 실질적 의미
 - ‘-만’ : ‘단독’, ‘오직’의 의미를 나타낸다.
 - ‘-아/어서’ : 이유를 나타낸다.
- 양태적 의미
 - ‘-아/어 버리다’ : 동작의 완료로 인한 화자의 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적 부담의 제거에서 오는 시원함, 기대에 어긋나는 데서 오는 섭섭함, 동작의 강조 등을 나타낸다.

③ 문법과 기능

최근에는 문법 형식 또는 문법 구조가 의사소통상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법 교육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법을 교육할 때 단지 형태와 의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 형태가 자주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능을 관련시켜서 가르치면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을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다. 문법 형태와 의사소통 기능을 연관시키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안하기 : -(으)니까요?

- 요청하기 : -아/어 주세요
- 계획하기 : -(으)려고 해요

의사소통 기능과 문법 형태를 연관시키는 방법의 확대로 전형적인 대화 쌍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전형적인 대화쌍이란 ‘가능성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허가 또는 금지(예 1)’,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명령이나 청유(예 2)’ 같이 대화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대화의 쌍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대화쌍을 이용하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맥락에 맞는 문법 기능과 형태를 유용한 대화 단위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예 (1) 가. 여기에서 사진 찍어도 돼요?
 나. 네, 여기에서 사진 찍어도 돼요.
 가. 여기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나. 아니요,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 (2) 가. 문을 닫을까요?
 나. 네, 문을 닫으세요.
 가. 저녁에 같이 공원에 갈까요?
 나. 좋아요, 같이 갑시다.

④ 문법 규칙

문법은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이다. 문법은 문장을 생성하는 규칙과 함께 제약을 포함한다. 규칙은 학습자가 문법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쉽고 간결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법 규칙을 기술할 때 형태적 규칙, 통사적 규칙만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언어 상황에 맞게 문법을 사용하게 하려면 양태적 의미 또는 화용상의 기능을 포함한 사용 규칙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²⁾

• 형태 규칙

〈음운론적 규칙〉

- 조사 ‘은/는’ : ‘은’은 자음 뒤에, ‘는’은 모음 뒤에 결합한다. 예 선생님은, 친구는
- 어미 ‘-아/어요’ : ‘-아요’는 ‘ㅏ’나 ‘ㅑ’로 끝나는 어간에, ‘-어요’는 ‘ㅓ’, ‘ㅕ’ 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결합한다. 단 ‘하다’ 용언과 결합하면 ‘-해요’로 바뀐다. 예 찾아요, 먹어요, 공부해요

2) 그러나 사용 규칙은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므로 사전적으로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 어미 ‘-(으)면’ : ‘-으면’은 자음 뒤에, ‘-면’은 모음 뒤에 결합한다. 단 받침이 ‘ㄹ’로 끝나는 어근에는 ‘으’가 붙지 않는다. **예** 먹**으면**, 가**면**, 놀**면**

〈형태소 결합 규칙〉

- 어미 ‘-(으)ㄴ/는데’ : 형용사에는 ‘-(으)ㄴ데’, 동사에는 ‘-는데’가 결합된다.
- 어미 ‘-아/어서’ : ‘-아/어서’는 시제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참** 이는 ‘-(으)니까’와 비교되는 점이다.) **예** 먹**었**어서(×), 먹**었**으니까(○)

- 통사 규칙

- 어미 ‘-아/어서’ :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쓸 수 없다.
(**참** 이는 ‘-(으)니까’가 명령문, 청유문, 미래형과 주로 쓰이는 것과 비교된다.)
예 추워서 창문을 닫았어요. / 추우니까 창문을 닫으세요.

- 사용 규칙

- ‘-다면서?’ : 이미 알고 있거나 들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물을 때 사용한다.
예 가. 선거가 연기되었다면서?
나. 그래. 나도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
- ‘-다니까’ : 청자가 의심할지도 모를 말에 화자가 자신의 말을 강조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예 가. 너 정말 숙제 다 했어? 놀러 나가고 싶어서 거짓말 하는 거 아냐?
나. 다 했다니까! 누나는 도대체 몇 번 말해야 내 말을 믿겠어?

통사 규칙이나 사용 규칙을 간결하고 쉽게 제시하려다 보면 100% 맞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초급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규칙과 제약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용법을 배제하고 규칙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용법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습득되어야 하므로 일단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간결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의 적용 연습과 활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간결하고 쉽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2.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

한국어 문법 교육은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지닌 문법 항목들을 단계화하여 이루어져 왔다. 문법 항목의 단계화를 위해 다음 기준들을 고려할 수 있다.

- 사용 빈도수 :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먼저 학습한다.
- 문법 항목의 난이도 :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항목을 먼저 학습한다.
- 일반화 가능성 : 제약이 적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학습한다.
- 복잡성 : 단순한 형태를 복잡한 형태보다 먼저 학습한다.
- 의사소통 기능의 관련성 : 목표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학습한다.

실제로 학습의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작용하므로 교사 또는 교재 개발자들마다 다르게 단계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법 항목의 일반적인 등급 기준에 대해 교사가 인식하고 있으면 학습 문법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3. 문법 교육의 방법

문법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연역적 접근 방식과 귀납적 접근 방식, 제시 훈련 모형과 과제 해결 모형 등이 있다. (Scott Thornbury 1999) 여기에서는 연역적 접근 방식과 귀납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 수업의 실례를 보인다.

3.1. 연역적 접근

연역적 접근 방식은 의미와 용법, 규칙을 먼저 제시하고 언어 자료를 통해 목표 문법을 이해하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법을 연역적으로 가르칠 때에는 규칙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수업이 되거나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사동사와 단형 사동문을 연역적으로 수업한 사례이다.³⁾

- 목표 문법 : 사동사, 단형 사동문 (중급)
- 수업 단계

① 의미 도입

(두 개의 그림을 보여 준다. 먼저 여자가 밥을 먹는 그림을 보여 준다.)

3) 사동문의 문법 교수 사례는 한재영 외(2003)을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교 사 :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해요?

학습자 : 밥을 먹어요.

(이번에는 여자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그림을 보여 준다.)

교 사 :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해요?

학습자 : _____

교 사 : 이 여자는 지금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두 가지의 행동을 보여 준다. 먼저 선생님이 의자에 앉는다.)

교 사 :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했어요?

학습자 : 의자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 학생을 앉히는 행동을 보여 준다.)

교 사 :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했어요?

학습자 : _____

교 사 : 선생님은 지금 ○○ 씨를 의자에 앉혔어요.

② 형태 규칙 제시 및 연습

- 사동사 목록을 표로 준비한다.

이	먹이다, 죽이다, 보이다, 붙이다, 끓이다
히	앉히다, 읽히다, 눕히다
리	울리다, 살리다, 알리다, 돌리다, 날리다
기	웃기다, 벗기다, 말기다, 신기다, 씻기다
우	깨우다, 비우다, 재우다, 채우다, 태우다

- 주동사 단어 카드를 보여 주고 사동사를 말하게 한다.

③ 통사 규칙 제시 및 연습

- 자동사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는 경우

____이/가 ____을/를 _____ (카드 제시 또는 판서)

아이가 웃습니다. → 어머니가 아이를 웃깁니다.

아이가 깎습니다. → 어머니가 아이를 깨웠습니다.

교 사 : 아이가 울어요. 누가 아이를 울렸어요?

학습자 : ____이/가 아이를 울렸어요.

교 사 : 아기가 자요. 누가 아기를 재웠어요?

학습자 : 엄마가 아기를 재웠어요.

• 타동사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는 경우

____이/가 ____에게 ____을/를 _____ (카드 제시 또는 판서)

아기가 우유를 먹습니다. →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학생이 책을 읽습니다. →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힙니다.

교 사 : 아기가 신발을 신었어요. 누가 아기에게 신발을 신겼어요?

학습자 : 엄마가 아기에게 신발을 신겼어요.

교 사 : 학생들이 시험 날짜를 알았어요. 누가 학생들에게 시험 날짜를 알려 주었어요?

학습자 : 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시험 날짜를 알려 주었어요.

④ 언어 자료를 통해 이해 확인

(짝 활동 : 한 사람에게는 질문이 5개 담긴 종이를, 한 사람에게는 답이 5개 담긴 종이를 주고 서로 맞는 것을 찾아 대화를 하도록 한다.)

질문

아이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불러서 다 못 먹겠어요.
아기가 밤에 잠을 안 자요.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해요.
눈이 오는데 동생이 산에 가겠대요.

대답

약을 사다가 먹이세요.
음식을 남기셔도 괜찮아요.
낮에 재우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히세요.
등산화를 꼭 신기세요.

3.2. 귀납적 접근

귀납적 접근 방식은 학습자 스스로 언어 자료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규칙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납적인 문법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의미와 규칙을 찾아내는 ‘발견’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적절한 의사소통 맥락으로 구성된 언어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규칙을 발

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귀납적 접근 방식은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규칙을 찾기 어려워하거나 문법 탐구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방법이다.

- 목표 문법 : 인용 표현의 준말 (고급)⁴⁾
- 수업 단계

① 상황 제시

(특정한 상황을 들려주고 인용 표현, 또는 인용 표현의 준말을 끌어낸다.)

상황 :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친구는 그 연극을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을 전달해서 친구의 마음을 바꿔 보십시오.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 / 늦게 가면 표가 없어서 못 본다 / 재미있어서 두 번 보는 사람도 많다 / 선생님도 보셨다 / 인기가 많아서 공연을 한 달 연장했다 / 내년에 영화로 만들 계획이다

⇒ “그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한대요.”

② 언어 자료를 보고 일반적인 규칙 찾기

- 자료를 나누어 주고 두 명씩 짝을 지어 자료에 나타난 공통점을 찾게 한다.

그 연극의 남자 주인공이 올해의 최우수 연기자 상을 탔대.
내가 재미있다면 분명히 재미있는 공연이니까 나를 믿고 같이 보러 가자.
친구가 그 연극을 봤는데 너무 웃겨서 끝날 때까지 계속 웃었다지 뭐야!
네가 요즘 스트레스가 쌓인대서 내가 일부러 연극을 보자고 한 거야.
두 시간 동안 연극을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잖아.
국내 공연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내년에 해외 무대로 진출한다는 말도 있어.
동생도 그 연극을 보고 싶다가에 내가 오늘 저녁에 같이 보러 가자고 했어.
늦게 가면 자리가 없대니까 내가 미리 가서 표를 끊어 둘게.

- 준말을 찾아 밑줄을 긋고 각각 무엇이 준말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4)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급 I> 제1과의 문법 내용을 참조하였다.

③ 규칙 제시

교사가 ‘-고 하-’가 생략되는 인용 표현의 준말을 자료나 판서로 보여 준다.

인용 표현 ‘-다고 하다’의 연결형 및 종결형은 구어에서 ‘-고 하-’가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네가 <u>간다고 하면</u> 다들 좋아할 거야.	⇒ 네가 <u>간다면</u> 다들 좋아할 거야.
요즘 70년대 패션이 <u>유행한다고</u> 하지 뭐야.	⇒ 요즘 70년대 패션이 <u>유행한다지</u> 뭐야.
대학 시험이 <u>없어진다고</u> 하는 말 들었어요?	⇒ 대학 시험이 <u>없어진다는</u> 말 들었어요?
성호가 <u>피곤하다고</u> 하기에 집에 가라고 했어.	⇒ 성호가 <u>피곤하다기에</u> 집에 가라고 했어.
12시에 문을 <u>닫는다고</u> 하니깐 빨리 들어가자.	⇒ 12시에 문을 <u>닫는다니</u> 깐 빨리 들어가자.
의사가 담배 피우지 <u>말라고</u> 하니깐 끊어야지.	⇒ 의사가 담배 피우지 <u>말라니</u> 까 끊어야지.
‘-다/냐/라/자고 해’의 준말은 ‘대/내/래/재’이다.	
정은이가 돈이 <u>없다고</u> 해서 빌려 줬어.	⇒ 정은이가 돈이 <u>없대</u> 서 빌려 줬어.
나보고 집에 혼자 <u>가라고</u> 했잖아요.	⇒ 나보고 집에 혼자 <u>가랬</u> 잖아요.
친구가 오늘 연극을 보러 <u>가자고</u> 해요.	⇒ 친구가 오늘 연극을 보러 <u>가재</u> 요.

④ 연습

학습자가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습 자료를 주고 목표 문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고치도록 한다.

지난달 1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3집 음반 고별 콘서트를 마친 박효신이 이번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간다고 해. 앞으로 1년 정도 4집 음반 준비를 한 후에 북경에서 대형 자선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 소식이 어제 뉴스에 나왔어. 이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을 중국에 있는 교포들을 위해 기부할 거라고 해. 또 박효신은 앞으로 만들 4집 음반을 우리말 가사 그대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더라. 신촌뮤직 기획사에서 중국 내의 음악 팬들에게 박효신이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하지 뭐야? 이 기획사는 자선 콘서트에 온 관객에게 4집 음반을 무료로 나누어 줄 예정이라고 하니, 참석한 사람들은 참 좋겠어. 북경에 사는 사촌 동생이 한국 가수의 공연에 한번 가 보고 싶다고 하기에 내가 이 콘서트 소식을 알려 줬어. 그 애가 갔다 와서 박효신 노래가 좋다고 하면 1, 2, 3집을 선물로 보내 줄까 해.

귀납적 접근 방식은 학습자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언어 자료를 통해 규칙을 발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법 항목에 따라서는 연역적 접근이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학습자에 따라서는 귀납적 접근 방식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므로 문법 항목의 종류와 학습자 유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문법 수업의 단계

일반적으로 문법 수업은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단계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단계에 따라 유의할 사항과 참조할 만한 학습 유형을 사례로 제시한다.

4.1. 도입

도입 단계는 학습자가 새로 학습할 문법 항목의 의미 또는 기능과 관련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동기 유발이 목적이므로 쉽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법 형식이나 규칙을 부각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나 기능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목표 문법 : -으러 가다 (초급)
(교사가 백화점 사진을 보여 준다)
교사: 어디 가요?
학습자: 백화점에 가요.
교사: 백화점에 왜 가요?
학습자: 쇼핑을 해요.
교사: 아,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요!

4.2. 제시

제시 단계는 학습 목표가 되는 문법 항목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문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법 항목을 의사소통의 맥락 속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을 사용하기 위한 발음, 형태, 문형에 대한 정보는 설명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연습을 통해 학습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중요한 것은 교사가 문법 항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⁵⁾ 단 수업에서 교사가 문법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장황하지 않게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초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간단히 설명하는 것도 좋다.

학습자가 문법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한 후에는 규칙에 맞게 해당 문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에는 학습자들에게 문법 항목의 규칙을 적용해 볼 기회를 주고, 모든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교사들은 정확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형태적·통사적인 설명에 치우

5) 문법 이해 및 설명을 위해 백봉자(1999), 이희자·이종희(2001) 등의 한국어 학습자용 문법 사전을 참조할 수 있다.

치기 쉬우나 이는 자칫하면 문법 구조 중심의 수업이 되기 쉽다. 따라서 구조적인 설명을 길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구조적인 연습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문법을 제시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교사의 발화와 판서, 또는 문법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교재에 문법 설명과 예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에 기대는 것도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의사 소통 맥락을 가져오기 위해 교재 속에 있는 대화문이나 산문 자료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법의 의미가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목표 문법 항목의 특성 및 학습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 유의미한 문법 연습과 활동을 강조하는 교재들에서는 연습을 위한 지시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예문을 보임으로써 문법의 의미와 기능, 형식을 함께 제시하기도 한다.

• 목표 문법 : -던데요 (중급)

휴가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직접 본 것, 제주도에 대해 느낀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직접 보고 느낀 것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공기가 맑고 바닷물이 깨끗하다	공기가 맑고 바닷물이 깨끗하던데요.
신혼여행을 온 사람들이 많다	
사투리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4.3. 연습

문법을 연습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문법 항목, 학습자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구조 연습 방법으로는 교체 연습, 응답 연습, 연결 연습, 완성 연습, 변형 연습, 확장 연습, 상황 연습 등을 들 수 있다.⁶⁾ 구조적인 연습을 통해서 문법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통사적인 기능을 연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연습은 자칫하면 고립된 단어, 문장 차원의 연습으로 머물러서 학습자들을 지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화 단위 또는 텍스트 단위의 연습을 통해 유의미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습의 단계 이후 의사 소통을 위한 실제적인 사용의 단계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연습의 가능한 유형들을 예시와 함께 제시한다.

6) 구조적인 연습 유형에 대해서는 조항록 외(2003)에 자세히 나와 있다.

① 교체 연습

교체 연습은 교사가 단어카드나 문장을 주고 학습자가 이를 해당 문법 항목에 맞게 바꾸는 연습이다. 문법 규칙을 적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한다.

- 목표 문법 : ‘-아/어요’ (초급)

찾다 ⇒ 학습자 : 찾아요

좋다 ⇒ 학습자 : 좋아요

웃다 ⇒ 학습자 : 웃어요

입다 ⇒ 학습자 : 입어요

교 사 : 비가 옵니다.

학습자 : 비가 와요.

교 사 : 밥을 먹습니다.

학습자 : 밥을 먹어요.

② 응답 연습

응답 연습은 교사나 학습자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맞게 대답을 하는 연습 활동이다. 학습자가 문법 항목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습 유형이다.

- 목표 문법 : ‘-(으)려고’ (초급)

교 사 : 왜 꽃을 샀어요?

학습자 : 여자 친구에게 주려고 샀어요.

- 목표 문법 : 시간의 ‘-에’ (초급)

교 사 : 언제 집에 들어가요?

학습자 : 저녁에 집에 들어가요.

③ 연결 연습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습이다. 주로 연결어미를 연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목표 문법 : ‘-아/어서’ (초급)

교 사 :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학습자 : 피곤해서 일찍 잤습니다.

기계적인 연결 연습을 피하고 학습자가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맞는 내용을 연결한 후 연결어미를 사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 목표 문법 : ‘아무리 -다고 해도’ (중급)

- | | | |
|---------------|---|---------------------------|
| 가. 화가 난다 | · | · 돈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지요. |
| 나. 배가 고프다 | · | · 하루에 두 시간만 자면 병이 나기 쉬워요. |
| 다. 건강하다 | · | · 공부 시간에 밥을 먹을 수는 없다. |
| 라. 물건이 마음에 든다 | · | · 가족에게 짜증을 내면 안 돼요. |

(⇒ 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가족에게 짜증을 내면 안 돼요.)

④ 완성 연습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연습이다. 교사가 앞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학습자가 의미를 생각하여 맞는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다.

• 목표 문법 : ‘-(으)면’ (초급)

교 사 : 시간이 많으면 저는 가족들과 많이 놀고 싶어요.

○○ 씨는 시간이 많으면 (……)?

학습자 : 시간이 많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완성 연습은 교재나 보조 자료에서 쓰기 유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목표 문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 목표 문법 : ‘-다고 치다’ (고급)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가.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해야지. 그 파일이 손상된 건 분명히 네 실수잖아.

나. 그래, _____ . 처음에 네가 그 일을 나한테 미루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 목표 문법 : ‘-(으)로 인하여’ (고급)

(기사문을 완성하십시오.)

2000년 7월에 시작하여 약 5년 3개월에 걸친 대공사 끝에 강남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_____ 몸살을 앓아 오던 서울시에 드디어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_____ 운송에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확장 연습

관형어나 관형절, 부사어나 부사절 등을 활용하며 문장을 길게 말하는 연습이다. 확장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단문이 아닌 복문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 목표 문법 : ‘-(으)ㄴ 정도로’ (중·고급)

교 사 : 클레오파트라는 용모가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학습자 : 클레오파트라는 눈이 부실 정도로 용모가 아름다워요.

다음과 같이 연결 연습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좀더 흥미롭고 유의미한 연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목표 문법 : 관형형 (초급)

(카드 유형 1, 2, 3에서 연결이 가능한 것들을 배열하여 관형형을 사용한 문장을 만들게 한다.)

카드 1 : 서울 / 제주도 / 배용준 ……

카드 2 : 아파트가 많다 / 아름답다 / 인기가 많다 ……

카드 3 : 도시 / 섬 / 영화배우 ……

⇒ 카드 배열 : 서울, 아파트가 많다, 도시

⇒ 문장 형성 : 서울은 아파트가 많은 도시입니다.

⑥ 상황 연습

교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학습자가 상황에 맞게 대답하도록 하는 연습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만한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 목표 문법 : ‘-(으)세요’ (초급)

교 사 : 목이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학습자 : 병원에 가세요.

- 목표 문법 : ‘-(으)로 보아서’ (고급)

(주어진 상황에 따라 추측해 보십시오.)

남동생과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의 나이가 궁금하다. 가만히 지켜보니깐 그 여자는 동생한테 반말을 하고 있다.

⇒ _____

⑦ 형태 연습을 위한 표 채우기

형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연습으로 초급에서 많이 사용된다. ‘-ㅂ/습니다’ 활용, ‘-아/어요’ 활용과 같이 어간에 따라 다른 형태가 결합하는 경우와 ㄹ 탈락, ㅁ 탈락, 불규칙 동사 등의 연습에 자주 사용된다.

- 목표 문법 : ㄹ 탈락

다음 표를 완성하십시오.

	-는	- ㅂ/습니다	-(으)ㅂ시다	-(으)ㄹ 거예요	-아/어요
만들다	만드는		만듭시다		
살다				살 거예요	
알다		압니다			
팔다					팔아요

⑧ 생각 개요 표 이용하기

생각 개요 표는 응답 연습이나 완성 연습과 유사하지만 학습자 스스로 생각의 개요를 완성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연습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좀더 의미에 집중하는 면이 강한 연습 유형이다.

- 목표 문법 : ‘-다면’ (중급)

※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떻게 될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50km로 간다	
회사에 매일 10분씩 지각한다	
내가 서울 시장이다	

⑨ 신문의 일부 교체 또는 완성하기

의사소통 맥락을 통해 문법을 연습하기 위해 텍스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텍스트의 잘못된 일부를 고치거나 부분적으로 완성하는 연습을 통해 문법 항목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다.

- 목표 문법 : ‘-께서’ / ‘-(으)십니다’ / 어휘적 높임 (초급)

※ 다음 이야기를 고쳐 쓰십시오.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습니다. 할머니가 과일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마십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잡니다. 저와 동생은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십니다. 할머니__ 과일을 _____. 아버지__ 차를 _____. 어머니__ 방에서 _____. 저와 동생은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	---	---

4.4. 사용

사용 단계는 실제 언어 생활과 비슷하게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들끼리 의사소통해 보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과제를 구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통합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행동화

교사의 말에 따라 동작을 하거나 또는 학습자들끼리 돌아가면서 문장을 만드는 활동이다. 명령문 연습에 많이 쓰인다.

- 목표 문법 : ‘-(으)십시오’ (초급)

앉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책을 펴십시오.
오른팔을 드십시오.

② 역할극 구성하기

역할극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대화를 해 보는 활동이다. 구체적인 의사

소통 기능을 목표로 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많이 사용해 온 방식이다. 역할극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 상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 목표 문법 : ‘-(으)르까요?’ / ‘-(으)비시다’ (초급)
- 목표 기능 : 메뉴 정하기, 음식 주문하기
(한식 / 양식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하나 정하게 한다.)
학습자 1 : 한식을 먹을까요? 양식을 먹을까요?
학습자 2 : 한식을 먹읍시다.
학습자 1 : 뭘 먹을까요?
학습자 2 : 저는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학습자 1 : 김밥도 시킬까요?
학습자 2 : 네, 시키세요.
학습자 1 : 여기요, 비빔밥하고 김밥 주세요.

③ 게임

게임은 학습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활동 유형이다. 특히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게임을 통한 언어 학습의 효과가 매우 높다.

- 목표 문법 : ‘-아/어서’ (이유)
‘-아/어서’로 내용 이어가기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룹 또는 반 구성원이 이어가면서 ‘-아/어서’를 사용한 문장을 만들어 가다 보면 인과 관계의 연속으로 인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완성된다.

④ 정보 교환하기 (정보 채우기)

학습자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배운 문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 방식이다.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 목표 문법 : ‘-이에요/예요’ (초급)
- 목표 기능 : 소개하기

이름	직업/전공	전화 번호	주소

⑤ 문제 해결하기

구체적인 문제의 상황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배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목표 문법 : ‘-(으)ㄴ’ (중급)
- 목표 기능 : 메모문 남기기

(같은 방 친구가 외출하면서 다음 메모를 남겨 놓았습니다. 저는 오후 네 시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메모를 남기십시오.)

메모	메모
<p>○○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히 나감. 슈퍼마켓에 가서 간단한 반찬거리를 준비해 주기 바람. 나오코 씨가 7시경 집에 들른다고 했음. 저 녁 식사를 함께 할 예정임. 6시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민정 씀</p>	

- 목표 문법 : 후회, 양보 표현의 종합적인 사용 (고급)
- 목표 기능 : 의견 말하기

[1단계]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물을 만들었으나 유사 업체가 너무 많아서 경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친구는 낙관적입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단 주어진 문법을 이용하십시오.

	생 각	사 용 문 법
나	<p>열심히 일해도 그 많은 경쟁업체를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선배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미래를 좀더 정확히 예견했다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p>	<p>-(으)ㄴ들 -았/었던들 -았/었더라면</p>
친구	<p>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다. 경영이 어렵기는 하지만 투자한 것을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유사 업체가 많아도 좋은 쇼핑물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p>	<p>-다손 치더라도 -기로서니 -다고 해도</p>

학습자 1 : 우리 이제 그만둡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들 그 많은 경쟁업체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학습자 2 :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더 버팁시다. 아무리 힘들기로서니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2단계] 다음 상황에 대하여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이야기하십시오.

동아리 회원 20명이 지리산으로 캠프를 떠나기로 했다. 이 캠프는 세 달 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기상 조건을 검색해 보니 남부 지방에 태풍이 온다고 한다. 한 사람은 캠프를 취소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그냥 계획대로 가자고 한다.

4.5. 마무리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업을 통해 익히게 된 문법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고 사용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습자 활동의 성과를 점검한다. 학습자를 격려하여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 또한 관련된 숙제를 부과하여 학습자가 배운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2000/2001), 한국어 초급 I·II, 경희대 출판국
- 김중섭·강현화·이정희·김동은·이명귀(2002), 한국어 중급 I·II, 경희대 출판국
- 김중섭·방성원·김지형·이성희(2003), 한국어 고급 I·II, 경희대 출판국
- 방성원(2003a),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문법의 개발 방향-학교 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어문연구 11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_____ (2003b),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 출판부
- _____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2), 한국어의 문법, 한국어 연수 교재, 국립국어연구원
- 조향록 외(2003), 한국어 문법 교수법, 예비교사·현직교사 교육용 교재 개발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재영 외(2003), 한국어 교육 총서 3 『한국어 문법 교육』 개발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Scott Thornbury(1999),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이관규 외 역(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한국어의 특징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한국어의 특징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1. 한국어의 위상

지구상의 언어는 대략 6,900여 개가 있다고 전하는데 한국의 언어 즉, 한국어의 위상은 어느 정도 일까? 현재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남한 4800만 명, 북한 2300만 명, 해외동포 700만 명으로 볼 때 약 7,800만 명으로 제법 대국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GNP가 세계 11위, 총 교역량이 13위임을 볼 때 한국어는 세계사에서 국제어로 도약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한국어를 적는 문자 즉,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표음성이 높아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

에스놀로그(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5th ed. 2005)의 언어 통계는 한국어를 사용 인구 수(모국어 화자)에서 13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모어 화자 중심 상위 20대 언어〉

- ①중국어 ②힌두어 ③스페인어 ④영어 ⑤아랍어 ⑥포르투갈어 ⑦벵갈어
- ⑧러시아어 ⑨일본어 ⑩독일어 ⑪판자브어 ⑫자바어 ⑬한국어 ⑭베트남어
- ⑮텔루구어 ⑯마리티어 ⑰타밀어 ⑱프랑스어 ⑲우루드어 ⑳이탈리아어

한편, 2007년도에 유엔(UN)은 세계 주요 언어 분포와 응용력 조사 자료에서 한국어는 세계 9위에 속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유엔의 전문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서 한국어를 9번째 국제 공개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신흥 독립국으로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대표적 국가인 한국의 언어는 사용 인구가 많아 신흥 대국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나라들이 대부분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전범 국가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바 없는 약소국가이었고 전쟁의 상처가 가장 오래 남아 아직도 고통 중에 있으며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은 제2언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약칭 KSL) 교육과 외국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약칭 KFL) 교육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재외동포 지역에서 가정이나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이고, 후자는 학교의 외국어 학습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재중, 재미, 재일 동포 사회처럼 한국어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후자는 그런 공동체를 상정하지 않고 학습 시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국어 학습이다. 최근에는 한류의 확산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행, 방문 취업에 따른 비자 발급제 시행, 한국 기업의 현지인 고용 등에 따른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1.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대학 및 대학원)

현지 대학의 자국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차원의 ‘한국어 전공 학과’ 또는 ‘한국어 교양 강좌’는 2007년을 기준으로 64개국 750여 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한국어 수강생은 2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해외의 대학 중에 일본은 2007년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은 335개교이며 이는 일본 전체 대학의 46.9%에 달하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90년대 중반 수교를 계기로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57개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재학생은 만여 명, 교수는 358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어과 졸업생의 취직률은 100%이고 한국어과 졸업생은 3~4개의 회사의 취직자리를 고를 수 있고 월급도 3,000위안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20개의 정규 대학과 20개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SAT II-Korean 응시자는 1997년 2,539명에서 2006년 3,888명으로 늘었다. 유럽 대학들의 한국어 강좌는 북미 지역 대학들에 비해 학생은 적지만 학생들이 거의 교포가 없는 유럽 지역 학생들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단독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한자 및 중세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고 1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 교환 연수 과정을 밟게 하는 대학들도

많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 한국학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연재훈(2006)은 현재 서유럽(러시아와 CIS 제외) 지역에는 대략 14개국 30여 개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고, 최정순(2005)은 유럽(러시아와 CIS 제외) 21개국 43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에서 한국어가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에 해당하는IGCSE(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의 선택 과목으로 2006년부터 채택된 것은 영국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아직은 모국어로서의 시험 과목으로만 채택된 것이고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중등학교 시험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위상과 수요가 더 높아져야 한다. 인도는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대학 교육 기관이 4개에 델리대학교의 한국어 과정 입학 지원자는 450명으로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2006년 기준). 호주의 경우 한국어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7개 있고 15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주요 7개 언어에 한국어를 포함하여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후 한국어를 강의하는 대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에 한국어를 강의하는 대학교가 40개나 되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국립 극동대학교의 경우 1980년대에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어 문학 강좌 개설을 이루어냈고, 그 후 한국과의 관계 증진으로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서적의 부족을 해결하게 되었고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인적 교류도 시작했다. 그러면서 1994년 한국어 문학 강좌가 한국학부로 되었고 1995년 동양학부 소속이었던 한국학부는 한국어문학과, 사학과, 경제학과를 갖춘 단과대 규모의 한국학 대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국학 대학은 러시아 최초의 ‘한국학 연구 센터’를 갖추게 되었고 러시아에서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총 본산이 되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해외 대학들에서의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하려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합당하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능력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과정은 해외의 각 대학에서 현지에 맞게 정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기준이 되는 해외에서의 한국어 또는 한국학 전공의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하여 과목명 등에서의 통일성과 과정의 체계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2.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

재외 교육 기관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기관들을 말한다. 재외동포 교육은 구체적으로 재외동포를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어 있는 전일제 한국학교는 물론, 토요학교, 강습소, 계절제 학교, 재외동포를 위한 방송 통신 체제, 이중 언어 학급이나 민족 학급에 대한 지원 체제, 모국 수학, 귀국자 자

녀를 위한 적응 교육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며, 이 밖에도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위한 연수나 교재 개발 등의 지원도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 교육 기관에는 대표적으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가 있다. 한국학교는 전일제 정규 학교로 한국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교육하고 한국교육원은 사회교육 기관으로 재외동포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 등을 교육한다. 한글학교는 동포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정시제 주말 학교와 일시 체류자 자녀를 대상으로 본국 연계 차원에서 개설 운영되는 2종류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 한글학교는 2,072개교이다.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 자료의 확보가 미흡해서인지 부처 간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2007년 6월 기준)

〈재외동포 교육 기관 현황〉

지역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학교	교원 (파견)	학생 (학급)	교육원	파견 교원	동포	학교	교원	학생
일본	4	158 (19)	1,725 (75)	14	22	638,546	55	179	2,883
아주	13	512 (29)	4,438 (210)	1	1	2,341,190	250	2,279	22,187
북미	-	-	-	7	8	2,327,619	1,056	9,327	59,474
중남미	3	102 (5)	697 (48)	3	3	105,643	79	641	4,561
구주,CIS	1	8 (1)	120 (14)	10	12	652,131	616	1,748	38,550
아·중동	4	31 (4)	116 (25)	-	-	11,654	40	275	1,324
계	14개국 25개교	811 (58)	7,096 (372)	14개국 34개원	46	6,065,129	2,096	14,449	128,979

한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5313호)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통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립하였다. 또한, 1999년 9월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법률 제 6015호, 약칭: 재외동포법)’을 제정, 재외동포를 국내법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금융, 부동산 등 경제 활동과 의료 보험, 연금 등 사회 복지 혜택도 국내인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교육관 및 교육원, 한국학교 신증설과 재외동포를 위한 민족 교육 교재 개발 및 제공 등에 해마다 예산 배정을 늘리고 있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의『참여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자료(2006)』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 ‘재외동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재외동포 기관 및 재정을 확충하고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의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어 교육과 보급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다 보니 중복 사업이 생기고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총괄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3. 한국어 문법의 특징

한국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어(印歐語), 특히 영어와는 구별되는 문법적 특성이 있다.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통사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는 꽤 광범위하다.

가. 한국어는 교착어(첨가어)에 속한다.

한국어는 교착어(또는 첨가어, agglutinative language)적 특징이 있다. 교착어란 여기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문법 관계를 표시하거나 단어를 형성하는 언어를 말한다.

(1) 할머니-께서-는 이야기-를 퍽 즐겁-게 하사-다-구나.

이러한 교착어적인 특성이 한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특히 한국어에서 여기에 붙는 문법 형태소의 수와 종류가 매우 풍부하며 대부분의 중요한 문법적 기능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져, 문법 형태소의 종류와 기능을 아는 것이 한국어 문법 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SOV) 어순의 언어에 속한다.

한국어는 타동사문의 구조로 보았을 때 주어(subject) 다음에 목적어(object)가 오고 서술어(verb)

가 문장 끝에 오는 SOV 어순의 언어(SOV language)에 속한다. 언어의 어순을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SOV, SVO, VSO)으로 분류해 볼 때에 한국어는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힌두어 등과 함께 SOV 언어이고, 영어는 대부분 서구의 언어들과 중국어는 SVO 언어이다. 이 양자의 차이는 서술어가 어디에 오느냐에 있다. 또한, SOV 언어는 대체로 후치사적 언어(postpositional language, 목적어-후치사-서술어 구조), SVO 언어는 전치사적 언어(prepositional language, 서술어-전치사-목적어 구조)라는 점이 있다. 물론, 한국어는 후치적인 특징이 있는데 후치사(한국어에서는 조사)뿐 아니라 어미, 보조 동사도 각각 어간, 본동사 뒤에 위치한다.

(2) 영화-가 나비-를 잡았다. (또는 잡았니?, 잡았구나)

위 예문에서 보면, 조사는 반드시 체언 뒤에 와야 하며, 어미나 선어말 형태들도 반드시 어간 뒤에 와야 한다. 이러한 후치적 특징이 서술어가 문말에 온다는 특성과 어울려 결과적으로 한국어는 문법의 많은 주요한 사항들이 문장 끝 무렵에서 결정되는 성질을 가지며(동사 문말 언어, verb-final language) 그것이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흔히, 이를 두고 영어를 오른쪽 가지치기(right branching) 언어라고 하고 한국어는 왼쪽 가지치기(left branching) 언어라고 한다.

또한, 한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이른바 자유 어순(free word order) 언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와 같이 어순이 고정된 언어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는 뜻이지 문자 그대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어서 어순의 변이에는 그 나름대로 제약이 따른다.

- (3) a. 형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b. 나에게 형은 선물을 주었다.
- c. 선물을 형은 나에게 주었다.
- d. ?* 선물을 나에게 형은 주었다.
- (4) a. 나는 그를 천재로 알았다.
- b. 그를 나는 천재로 알았다.
- c. ?* 나는 천재로 그를 알았다.
- d. * 그를 천재로 나는 알았다.

다. 한국어는 근간 성분의 생략이 용이한 언어에 속한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은 그 문장의 성립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라 하여 흔히 근간 성분(根幹成分)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이렇듯 필수적인 근간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가 잘 생략되는 특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어가 잘 생략되는 일은, 주어를 거의 모

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어 등과 비교하여 한국어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만하다.

- (5) a. 어디에 가십니까? (2인칭 주어 생략)
- b. 벌써 다 읽었구나. (주어 및 목적어 생략)
- (6) a. 벌써 가을입니다. (주어 생략)
- b. 온 겨레가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꽃을 나라꽃이라 합니다. (주어 생략)

라. 한국어는 경어법이 극도로 발달한 언어에 속한다.

한국어는 경어법이 복잡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체계적으로 발달하여 있다. 누구를 존대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국어 경어법을 흔히 셋으로 나누는데 주체 경어법, 객체 경어법, 상대 경어법(또는 청자 경어법)이 그것이다.

- (7) a. 민호가 동생에게 밥을 주었다. (주체-, 객체-, 청자-)
- b. 민호가 동생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청자 +)
- c. 어머니께서 민호에게 밥을 주셨다. (주체 + , 객체-, 청자 -)
- d. 어머니께서 민호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주체 + , 객체-, 청자 +)
- e. 민호가 어머니께 진지를 드렸다. (주체-, 객체 + , 청자-)
- f. 민호가 어머니께 진지를 드렸습니다. (주체-, 객체 + , 청자 +)
- g.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진지를 드리셨다. (주체 + , 객체 + , 청자-)
- h.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진지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 청자+)

한국어 경어법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많이 만들어 쓰고 있다. 그래서 흔히 한국어 경어법을 모르고서는 국어를 다 깨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어 경어법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발달되어 있다.

그 밖에 한국어에는 음운에서도 영어에는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자음 목록에서 영어의 순치음, 치간음이 없는 것을 우선 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폐쇄음 및 마찰음, 파찰음에 있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한국어에는 없다. 이것은 중국어나 일본어와 비교하여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그 대신에 영어에는 없는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이 있다. 가령, 달(moon)-딸(daughter)-탈(mask) 따위의 구분이 서양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4. 한국어 문법의 핵심 요소

가. 격과 조사

격조사의 지위와 격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조사를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나누고, 격조사를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의 조사로 나누어 본다.

- (8) a.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b.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9) a. 선생님께서 철수를 칭찬하셨다.
b. 나라에서 학자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주격 조사란 그 조사가 결합한 명사나, 명사 상당의 구나 절이 그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 주는 조사이다.

- (10) a. * 우리 학교에서 더 유명한 학교이다.
b. * 당국에서 책임이 더 크다.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특이한 점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하나의 문장에 주격 조사가 두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문장을 흔히 이중 주어문이라고 부른다.

- (11) a. 철수가 발이 제일 크다.
b. 할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으시다.

이중 주어문이란 하나의 서술어에 대응되는 주어가 두 개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11a)의 ‘발이 크다’를 서술절로 보아 ‘발이’를 서술절의 주어로 처리하고 있다.

- (12) a. 학생이 다섯이 찾아왔다.
b. 학생 다섯이 찾아왔다.
c. 학생 다섯으로 한팀이 될까?

예문 (12a)는 두 번째 주격 조사가 수량사 구일 때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이다.

- (13) a. 아이들이 매미를 잡는구나.
b. 영희가 벌써 그 소설을 다 읽었나 봐요.

목적격 조사는 주격 조사와 함께 국어 격조사의 쌍벽이라 할 만하다. (13)에서 ‘매미’와 ‘소설’은 각각 그 문장의 목적어이며, 거기에 ‘을/를’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a. 철수는 늘 호쾌한 웃음을 웃는다.
- b. 아기가 잠을 잘도 잔다.

위의 예문은 이른바 동족 목적어(cognate object) 자리에 ‘을/를’이 쓰인 경우이다. 동족 목적어란 그 의미가 목적어를 지배하는 동사의 의미와 동류인 목적어를 말한다.

- (15) a. 30분을 걸어서 학교에 도착했다.
- b. 영화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위의 예문은 이른바 이동 동사(移動動詞)가 ‘을/를’을 취하는 특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이동 동사는 시간 및 장소 관련 표현을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 (16) a. 한국의 자연
- b. 언니의 손가락
- c. 독서의 계절
- d. 오늘의 요리

명사와 명사 사이에 나타나 두 명사를 더 큰 명사구로 묶어 주는 조사 ‘의’를 관형격(冠形格) 조사 {또는 속격(屬格), 소유격(所有格) 조사}라고 한다.

- (17) a. 학생으로서의 본분
- b.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 c. 적지에서의 승리

위 예문은 조사가 결합된 명사구에 다시 ‘의’가 결합된 구성으로 예전에 없던 일종의 번역 투로서, ‘학생의 본분’, ‘일상의 탈출’, ‘적지에서 거둔 승리’ 등으로 표현하여야 맞다는 논란의 표적이 되는 구성이다.

- (18) a. 산에 나무가 많다.
- b. 창호는 도서관에 갔고, 영수는 김포 공항에 나갔다.

처소나 지향점, 또는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격을 부사격(副詞格, 또는 처격) 조사라고 하는데, 국어의 부사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사는 ‘에’이다.

- (19) a. 누구나 제멋에 산다.
b. 낙랑공주는 사랑 때문에 조국을 버렸다.

위의 예문은 ‘에’가 일종의 관용구를 구성하여 그 쓰임이 특이해지는 경우이다. 이들의 ‘에’는 선행하는 명사(특히 의존 명사)와 분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굳어진 것이 특징이다.

- (20) a. 화초에 물을 주어라.
b. 그 책임은 회사에 있다.
(21) a.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라
b.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사격 조사 ‘에’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조사로 ‘에게’가 있다. 이 ‘에게’를 여격(與格) 조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동사 ‘주다’류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22) a.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많은 문물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b. 마파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부사격 조사 ‘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조사로 ‘에서’도 있다. ‘에서’는 특히 ‘에’와 매우 비슷한 의미를 보이면서 ‘에’가 취하는 동일한 장소 표시의 명사에 잘 쓰임으로써 흔히 ‘에’와 혼동하여 쓰인다.

나. 문장의 종결

한국어는 어미가 대단히 많아 그 종류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뿐 아니라 많은 문법 현상이 이 어미에 의해 결정된다. 어미는 우선 선어말 어미(先語末語尾, prefinal ending)와 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 (23) a.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셨-다.(←사-었-다)
b. 하루쯤 쉬-면, 기분이 한결 좋아자-겠-지.

예문 (23)에서 ‘-는’, ‘-다’, ‘-지’는 어말 어미이고, ‘-사’, ‘-었’, ‘-겠’은 선어말 어미이다. 어말 어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간에 결합하여 단어를 이룰 수 있으나, 선어말 어미는 반드시 어말 어미가 있어야 한다.

- (24) a. 학생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b. 나는 어제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었다.
c. 아주 즐거웠던 지난 겨울 방학이 그리워졌다.
d. 내일은 비가 오겠다.
e. 그 일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문장의 서술은 시간 표현의 대상이 된다. 서술의 동작이나 상태가 전달되는 시점을 발화시(發話時)라고 하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事件時)라고 한다. 문장에서 시간 표현과 관련을 맺는 문법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 (25) a. 철수는 지금 학교에 오고 있다.
b. 철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시간 표현과 관련을 맺는 또 다른 문법 기능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이어 가는 모습, 동작이 막 끝난 모습 등이 있는데, 이렇게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동작상(動作相)이라고 한다.

다. 피동과 사동

피동문은 원칙적으로 그에 대응되는 능동문을 가지며, 그 능동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능동문에 어떤 절차를 가하여 만들어진다.

- (26) a.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b.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었다.

위의 문장 (26a)는 주어가 제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한다. (26b)는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해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27) a. ?*바위가 나무를 깔았다.

b. 나무가 바위에 깔렸다.

한국어는 능동문이 더 기본적이면서 무표적이고 피동문이 파생적이며 유표적임은 피동사가 능동사에서 접미사의 첨가로 파생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8) a. 영희가 가위로 색종이를 잘랐다.

b. 색종이가 {*영희에게, 영희에 의해} 가위로 잘렸다.

피동문은 주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하’ ‘-리’ ‘-기’ 등이 결합되어 실현된다. 또한, 능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일 때는 예문 (26)에서처럼 ‘에게’(또는 ‘한테’)를 취하며 그 주어가 무정명사일 때는 예문 (27)에서처럼 ‘에’를 취한다.

(29) a. 이 금관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b. 여름철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c. 한때는 중국이 몽골에 정복되었다.

한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은 피동사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국어에는 조동사에 의해 피동이 표현되는 또 다른 방식도 있다.

(30) a. 철수가 책을 읽었다.

b.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한국어의 사동문도 피동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동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사동사에 의해 주도된다. (30a)에서처럼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주동문(主動文), (30b)에서처럼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동문(使動文)이라고 한다.

(31) a.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b.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사동문에는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이 있다. 파생적 사동문은 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 ‘-하’, ‘-리’, ‘-기’, ‘-우’, ‘-구’, ‘-추’ 등과 결합하여 실현되고, 통사적 사동문은 보조적 연결 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이어진 통사적 구성으로 실현된다.

라. 접속과 내포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하나와 서술어 하나만 갖추면 성립된다. 거기에 목적어나 보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가 있다. 말하자면 근간 성분만 갖추면 문장은 일단 온전한 모습이 된다.

- (32) a. 들에는 비가 오고, 산에는 눈이 온다.
b. 비가 오면 산이 더 아늑하게 보인다.

전통적으로 주술 구성이 한 번인 문장을 홑문장(또는 단문, simple sentence), 두 번 이상인 문장을 겹문장(또는 합성문. 이를 중문과 복문으로 나눔, compound sentence와 complex sentence)이라고 하였다.

- (33) a.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b. 네가 노래를 부르니 모두들 좋아하는구나.
(33) a. 고기가 물이 너무 맑으면 모이지 않는다.
b. 모두 네가 노래를 부르니 좋아하는구나.

국어에는 부사절(또는 종속절)을 이끄는 어미가 매우 많다. 그만큼 기능도 다양하고, 어느 한쪽으로 몰기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그것들을 종속 접속으로 처리하느냐 내포로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 (34) a. 여름은 더우며 겨울은 춥다.
b.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

두 문장을 대등하게 결합시켜 주는 것은 어미들이다. 이 어미들을 접속 어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미상으로 나열의 접속 어미와 대조의 접속 어미로 나눌 수 있다.

- (35) a. 누구나 그가 우승 후보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b.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린다.

내포는 하나의 문장이 한 단어의 자격이 되어, 즉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이 되어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므로 접속보다 복잡하고 그 유형도 여러 가지다.

5. 한국어의 변화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과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을 넘어 그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식과도 결부되며 민족의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민족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민족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급하려 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만주족의 만주어(이미 소멸), 몽고족의 몽골어(존재하지만 그 위상이 약화), 켈트족의 아일랜드어(새로 부활) 등 여러 언어의 역사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말과 글도 조선 시대의 양반 사회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사회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만들어진 한국의 말과 글을 살펴보면, 언론에서는 생경한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통신에서는 문법을 파괴하는 정체불명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일부의 한국어학자는 이를 두고 일종의 유행어처럼 번지는 현상이므로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또 일부는 한국의 말과 글을 병들게 하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언어의 보수성 면에서 한국어의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최근 신어의 실태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이 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신어는 2002년에 408개, 2003년에 654개, 2004년에 629개, 2005년에 408개 등이다. 이런 신어 가운데는 한때 쓰이다가 종적을 감추는 유행어도 꽤나 있다. 이들 언론에 나타난 신어의 조어상 특징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아주 많다.

먼저, 단일어에서는 축약어(줄인 말)가 아주 많다. 그 사례로 ‘밀당(밀고 당기기), 셀카(셀프카메라),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 등이 있다. 외태어 표현도 많이 있는데, 그 사례로 ‘휘청, 벌러덩, 찔찔, 출썩, 에고에고, 버럭’ 등이 있다. 특이한 부류에는 운칠기삼(運七技三, 운수가 전체의 7할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3할이 기술로 결정된다는 뜻으로 실력보다는 운을 강조한 말), 동명이사(同名異社,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회사), 여부야빈(與富野貧, 여당이 야당에 비하여 정치 후원금이 많아 자금 면에서 여당은 부유하나 야당은 가난하다는 말) 등과 같은 넉 자로 된 성구 형식의 신어를 들 수 있다. 파생어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접두사 파생어는 ‘대-반전, 대-참사, 재-영입, 재-탈출’ 등의 ‘대(大)-, 재(再)-’와 같은 접두사가 대표적이고,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반딧불-족, 캥거루-족, 나들이-파, 청순-파’ 등의 ‘-족(族), -파(派)’와 같은 접미사가 대표적이다. 특이한 부류에는 접미사는 아니지만 ‘음-치’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몸-치, 색-치’와 같은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어법과 비교하여 매우 부자유스러운 신어로는 ‘몰래카메라, 깜짝쇼, 반짝세일, 똬다방, 놀자판’ 등을 들 수 있다. 부자유스럽기는 하지만 한국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용어들이다.

다음에는 언어 공해로까지 불리는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따로 익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유형을 조사한 보고서가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통신 언어 어휘집』)되었는데 형태나 의미, 새말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형태 변이형이 가장 많다.

형태 변이형의 사례로 ‘10002(많이), p 본다(피를 본다)’ 등이 있고, 의미 변화형의 사례로 ‘번개(갑자기 약속을 정하여 실제 만나는 일), 줄서다(인터넷 게임에서 편을 가르다)’ 등이 있고 새말의 유형으로 ‘도배방(도배+방, 게시판에 연속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 카페지기(카페+지기, 가상 공간의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 등이 있다. 가장 나쁜 유형은 대화방에서 빠른 입력을 위해 줄여 쓰거나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인데, 그 사례로 ‘글쿤(그렇군), 념행(너무해), 조아(좋아), 머시따(멋있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어의 조어법이 통신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합성어나 파생어의 모습에서 그 유형을 그대로 찾을 수 있다. 그 사례로 ‘진실남(진실+남, 개인 정보를 솔직히 공개하는 남자), 멜친구(메일+친구, 전자우편을 통해 사귀는 친구), 리하이(리+하이, 다시 만났을 때 인사하는 말)’ 등이 있다. 축약어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사례로 ‘초딩(초등학생), 고딩(고등학생), 직딩(직장인), 즐밤(즐거운 밤), 즐팅(즐거운 채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집단 사이에서 은어처럼 사용되던 말들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얼짱, 몸짱, 쌤얼, 품절남, 된장녀’ 등과 같은 낱말들이다.

이런 통신 언어가 문제가 된 것은 1990년 초반 무렵으로 부정적인 면에서는 문법을 파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어휘의 의미를 확대하여 한국어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부족한 면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의사소통에 장애를 줄 만큼 심각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나치게 문법을 무시하는 뚜렷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능하면 이들 용어를 정책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 교육과 어문 정책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은 언어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언어 선택의 분별력이 없는 시기이므로 통신 언어 사용 면에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신 언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육을 통해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자주 듣고 접하다 보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는 것이 말이다. 통신 언어도 언젠가는 일상생활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언어의 굴절이 그렇게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상표명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그니, 모드니에, 누네티네’ 등 변형된 국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용어도 우리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과 그래도 우리말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한국어의 변형은 외래 선호 풍조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부

인할 수 없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한국어의 느낌을 가리고 그 어감에만 의존한 채 외국어의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현상은 한국어와 외국어의 조합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6. 맺음말

앞으로 한국어학자나 한국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 현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아름답고 정겨운 한국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선별된 이들 언어에 대해서는 한국어사전에 반영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프랑스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다운 언어가 된 것은 국민과 국가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잘 가꾸고 아름답게 다듬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는 북한도 고유어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국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어렵고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어떤 언어에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품위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의 규범은 당연히 익혀야 한다.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아름답고 올바른 언어 사용이 그 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세련된 언어의 사용이 한 민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이다.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한국어 듣기 교수법

김형배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한국어 듣기 교수법¹⁾

김형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듣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

1.1. 듣기 교육의 필요성

언어 교육의 이론을 검토해 보면, 1960년대 초 청각구두식 방법(Audio-lingual Method)이 그 세력을 점했을 때까지만 해도 의사소통 능력 중 ‘말하기’ 기술에 관한 교수 활동과 연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James Asher's(1977)의 전신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의 연구 이후 언어 학습과 교수에서 듣기는 구두로 대답하기 전에 많은 양의 언어를 들을 때 중요한 이해의 역할이며, Krashen(1982)에서 수용력(aural reception of language)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언어 습득에서 ‘듣기’에 대한 관심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Rivers는 또한, 성인은 그들의 45%를 듣기에 보낸다고 하면서 듣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듣기에 대한 학자들의 언급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았을 때 듣기 교육이 언어 교실에서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언어 입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보 학습자에게 있어서 듣기는 언어 입력으로서의 의미 이해 수단이요,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문법 체계를 정교하게 하기 위함이고,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어휘력이나 관용어 사용 한계를 넓히고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Peterson,1991)

또한, 듣기는 매우 능동적인 과정이다.(Rivers,1971) Rivers는 듣기 과정을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다. 첫 단계는 대략적인 인상을 감지하는 단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비교적 수동적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언어음의 분절화와 그룹화를 통해서 언어음을 인식하는 단계인데 능동적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복습과 기억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이전의 두 단계와 동시에 진행되

1) 이 단원은 김유정(2004),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자료(국립국어원)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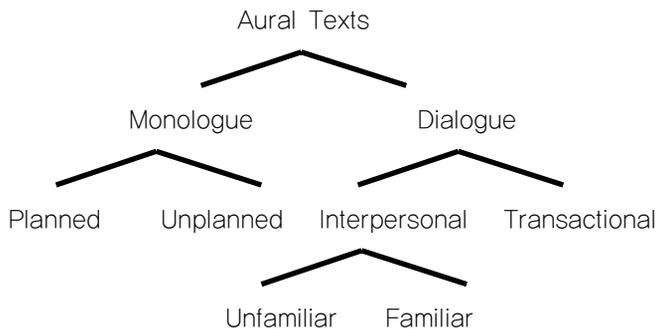
는데 결과적으로 청각 자료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다.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청각 자료는 의미 표시는 보유하면서 문장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된다. 이런 세 가지 단계에서 학습자는 단지 수동적인 청취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음을 감지하고 음을 그룹화하고 기억하는 능동적 행위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듣기 과정을 다른 언어 기능의 지도에 종속시켜서 지도하는 것은 제2언어 교육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능률적인 과정으로 듣기 능력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2. 상향식 듣기와 하향식 듣기

상향식 듣기 처리 모형은 듣기란 일직선 형태로서 들은 소리들을 가장 작은 의미 단위 또는 음소로부터 단어, 구, 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의미를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하향식 듣기 처리 모형은 청자가 들려오는 소리를 단서로 삼아 화자의 원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에서 청자는 자기가 들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듣기가 일어나는 문맥과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이해한다. 즉 청자는 듣기 자료에서 단어로 표시된 지식만을 이용하지 않고 청자의 경험적 지식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하향식 접근 방식의 요점이다. 따라서 듣기 지도는 상향식 접근 방식에만 기초를 두어 지도하지 말고 하향식 접근 방식에 기초를 두어 보다 큰 듣기 내용의 흐름이나 문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법이다.

1.3. 듣기 자료

David Nunan(1991:21)을 보면 듣기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또한, Richards(1990)에서는 듣기의 언어 기능과 언어 과정을 합쳐서 격자형의 표를 만들어 듣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이 예를 한국어 듣기에 적용해 보면 <1>은 친구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반응을 하는 것이고, <2>는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안내원의 지시를 듣고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3>은 사람이 많이 모인 개인적인 자리에서 옆자리에서 들리는 소

또한, 이러한 듣기 자료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에는 다양한 종류를 상정할 수 있다.

〈듣기 반응의 종류〉

- 1) 선다형 : 선다형으로 제시된 답 중에서 고르는 형태의 듣기 유형이다.
- 2) 참, 거짓 찾기 : 50%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 있으므로 듣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 타당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3) 정보 전이 : 지도나 도표 혹은 간단한 그림 등에 들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 4) 주관식 단답형 쓰기 : 정보를 듣고 간단한 어휘 차원에서 답안을 작성한다.
- 5) 메모하기(노트하기) : 강의와 같은 듣기에 흔히 수반되는 활동으로 들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말을 창조하거나 완성 혹은 다른 방법으로 윤색하는 등의 쓰기 활동과 연관된 활동이다. 쓸 때에는 한국어 혹은 수험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6) 받아쓰기 : 한 문장 이상의 발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듣고 쓰는 부분적 받아쓰기와 몇 개의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쓰는 전체 받아쓰기가 있다. 이는 들은 내용과 쓰여 있는 내용을 일치시키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다.
- 7) 말하기 : 들은 내용을 자신의 발화로 나타낼 수 있다. 들은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대화, 혹은 들은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말하기, 혹은 이에 대해 토론하기 등으로 발전시켜 말하기 능력과 함께 연계될 수 있다.
- 8) 수행하기 : 들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활동이다. 운동 코치의 지시 내용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등의 활동이 있다.

1.4. 듣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Brown과 Yule(1983)은 구두 언어 지도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는 화자 요소이다. 화자의 수, 화자가 말하는 속도, 화자가 사용하는 억양 등이다.

둘째는 청자 요소인데 청자의 역할, 청자에게 요구되는 반응 수준,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 여부가 포함된다.

셋째는 내용 요소로 문법, 어휘, 정보 구조, 배경 지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는 보조 자료 요소로서 본문 내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림이나 도표 혹은 다른 시각 보조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된다.(박경자 외, 1993:349)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듣기 자료를 구성하면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2. 듣기 교육의 원리

효과적인 듣기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듣기 이해 능력을 개발시키는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내용 중심적이거나 네 가지 기술이 통합된 교재를 통해 교수가 이루어지더라도 분리된 각각의 기술은 적절히 나누어서 특별한 초점을 줄 만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듣기 기술의 창안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적으로 학습자에게 동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청취자의 개인적 흥미와 목적에 호소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듣기의 확실한 목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배경 정보는 듣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과를 계획할 때 학생의 경험, 목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활동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고 마지막 목적을 위해 스스로 추진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제 언어와 문맥을 이용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 언어와 실제 세계 과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 의사소통 목적에 있어 교실 활동의 적절성을 보게 한다. 만들어진 인공적인 교재보다는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소개함에 의해서 학생들은 그 활동에 더 쉽게 몰두할 수 있다.

실제 언어 자료	인공적인 언어 자료
자연스러운 가락	자연스럽지 못한 가락
자연스러운 억양과 발음 (특히 조심스럽지 않은)	지나치게 또렷한 발음
말하는 사람들끼리 얼마간 겹치는 것 (끼어들기를 포함)	말하는 이들끼리 겹쳐지지 않음
정상적인 속도의 말투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림)	느린(단조로운) 말투
말하기에서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한결 짜임새 없는 말	소리 내어 말한다기보다는 조용히 읽는, 짜임새 있는 말
온전하지 못한 문장, 잘못된 시작, 머뭇거림들	입말치고는 온전한 문장들
배경에서 들리는 잡음, 때로는 배경에 깔린 목소리	배경 잡음이 없음
제멋대로 시작하고 멈춤	인위적인 멈춤과 시작
글말보다 성글게 담긴 정보	차곡하게 담긴 정보

넷째, 청자의 대답·반응 형태를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듣기가 디자인되어야 한다. 사실 이해 자체는 외부적으로 관찰되기 어렵다. 교사는 단지 말에 대한 학습자의 명백한 반응(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을 통하여 이해된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다섯째, 듣기 전략 개발을 격려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자들은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른

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실을 넘어 확장할 수 있는 듣기 전략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다.

- 키워드 찾기
- 의미에 관련한 비언어적 실마리 찾기
- 구어 담화의 문맥에 의해 화자의 목적 예언하기
- 정보와 스키마 결합시키기
- 의미 추측하기
- 해답 찾기
- 일반적 요점 듣기
- 듣기 이해에 대한 테스트 전략

여섯째, 상향식·하향식 듣기 기술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듣기 기술 연구에서는 상향식보다는 하향식 듣기 기술이 강조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등급 및 선택된 학습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일곱째, 과정 중심의 듣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듣기와 이에 따른 답안 찾기의 교육이 아니라 <듣기 전-듣기-들은 후>의 과정 듣기를 통해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듣고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단계의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들은 후 단계
배경 정보 주기 교재 읽기 관련된 그림 보기 주제 관련한 토론하기 질의응답 쓰기 연습 듣기 위한 질문 읽기 가능한 목록 작성하기 도표 채우기 들을 말 미리 보기	그림에 표시하기 체크하기 차례대로 그림 배열하기 그림 완성하기 그림 그리기 행동으로 옮기기 지시에 따라 모델 만들기 길 찾아가기 빈칸 메우기 서식/도표 완성하기 목록 사용하기 참/거짓 선다형 질문 본문 채우기(빈 곳) 잘못 바로잡기 예측하기 정보 찾기	문제 풀기와 결정하기 해석하기 역할극 쓰기

여덟째, 개인적인 듣기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짝 활동과 그룹 활동도 하도록 한다. 듣기는 ‘혼자’ 듣기 학습으로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들은 것을 각자 서로 다르게 이해했을 때 그 이해 내

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듣기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들은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또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기도 하며 듣기 학습을 하는 진정한 까닭이 되며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한다.

아홉째, 교사는 자신이 잘 다룰 줄 아는 녹음기 또는 다른 어떤 장비라도 모험 삼아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장비를 서투르게 다루다가 듣기 활동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어의 표준 발음

3.1. 한국어의 자음

〈자음 분류표〉

조음 방법	조음 세기		조음 위치	(두)입술소리 아랫입술-윗입술	잇몸소리 혀끝-윗잇몸	센입천장소리 혃바다-경구개	여린입천장소리 혀뒤-연구개	목청소리 목청 사이	
	파열음	연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무성음 (안올림소리)	파열음	된 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연음	예사소리			ㅈ			
	파찰음	된 소리					ㅉ		
		거센소리					ㅊ		
		연음	예사소리			ㅅ			ㅎ
유성음 (올림소리)	비음 (콧소리)			ㅁ	ㄴ		ㅇ [ŋ]		
	유음 (호름소리)				ㄹ				

3.2. 한국어의 모음

〈단모음 분류표〉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의 앞뒤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모음		ㅣ [i]	ㅑ [y]	ㅡ [ɨ]	ㅜ [u]
중 모음		ㅓ [e]	ㅕ [ø]	ㅗ [ə]	ㅛ [o]
저 모음		ㅗ [ɛ]		ㅓ [a]	

1) ‘기’와 ‘긔’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금괴(金塊, 금덩이) [금괴/금꺠] / 금꺠(金櫃) [금꺠]

- 반모음(半母音):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갈 때 발음되는 소리.
- 이중모음(二重母音, diphthong):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소리.
 - 전설이중모음: ㅑ, ㅕ, ㅛ, ㅜ, ㅠ, ㅟ, ㅞ
 - 원순이중모음: ㅘ, ㅚ, ㅝ, ㅞ
 - 그 밖: ㅓ

2)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긔’는 [기]로 발음한다.

널리리	닝큼	띄어쓰기	씩어	띄어	희어	희망
희미하다	흰옷	유희	무늬	하늬바람		

3)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허비]
우리의[우리의/우리예]	강의의[강: 의의/강: 이에]
문의(問議)[무:늬/무:니]	성의(誠意)[성의/성이]
내의(內衣)[내:의/내:이]	

4)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져[가저]	굳히어 → 굳혀[구처]	다지어 → 다저[다저]
다치어 → 다쳐[다처]	돋치어 → 돋쳐[돋처]	바치어 → 바쳐[바처]
붙이어 → 붙여[부처]	살지어 → 살찌[살찌]	잊히어 → 잊혀[이처]
지어 → 저[저]	찌어 → 쨌[쨌]	치어 → 처[처]

5) ‘예, 례’ 이외의 ‘긔’는 [기]로도 발음한다.

개폐[개폐/개폐](開閉)	계산[계산/계산]	계시다[계: 시다/계: 시다]
계집[계: 집/계: 집]	밀폐[밀폐/밀폐]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은혜[은혜/은혜]	지혜[지혜/지혜](智慧)
통계[통:계/통:계]	폐단[폐:단/폐:단]	혜성[혜:성/혜:성]
혜택[혜: 택/혜: 택](惠澤)		

3.3. 음의 길이

1) 첫음절에서만 긴소리를 허용한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눈[눈:] [雪]	눈보라[눈 : 보라]	눈사람, 눈싸움
〈단음〉 첫눈, 진눈깨비, 싸락눈, 함박눈		
말[말:] [言]	말씨[말 : 씨]	말동무, 말소리, 말싸움, 말장난
〈단음〉 참말, 거짓말, 서울말, 시골말, 중국말		
밤[밤:] [票]	밤나무[밤 : 나무]	밤꽃, 밤밥, 밤송이, 밤알
〈단음〉 군밤, 찐밤, 꿀밤, 알밤		
많다[만 : 타]	〈단음〉 수많이[수 : 마니]	
멀리[멀 : 리]	〈단음〉 눈멀다[눈멀다]	
벌리다[벌 : 리다]	〈단음〉 떠벌리다[떠벌리다]	
〈단음〉 낫설다, 눈멀다, 맥없다, 성내다, 침뱌다, 힘세다, 힘없다, 휘몰다, 떠돌다, 비웃다 ; 꺼안다, 내뱌다, 빼내다, 뛰어넘다, 갈아대다, 몰아넣다, 죽어지내다		

2) 합성어에서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 바 : 닉 / 반 : 신 바 : 니]	재삼재사[재 : 삼 재 : 사]
선남선녀[선 : 남 선 : 녀] (善男善女)	전신전화[전 : 신 전 : 화] (電信電話)

※ 같은 음절이 반복되어 두 음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째 음절을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반반(半半)[반 : 반]	간간(間間)이[간 : 간-]	영영(永永)[영 : 영]
서서(徐徐)이[서 : 서-]	시시비비(是是非非)[사 : 시비비]	

3)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한 음절로 축약한 때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봐 :]	기어 → 겨[겨 :]	되어 → 돼[돼 :]
두어 → 뒤[뒤 :]	하여 → 해[해 :]	

※ 파·사동 접미사가 어간과 축약된 때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누이다 → 뉘다[뉘 : 다]	트이다 → 틱다[틱 : 다]	쏘이다 → 췌다[췌 : 다]
-----------------	-----------------	-----------------

4)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쩌,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가+아→가, 서+어→서, 켜+어→켜’처럼 같은 모음끼리 만나 모음 하나가 빠진 때에도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5)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감다[감:따] — 감으니[가므니]	넘다[넘:따] — 넘으면[너므면]
뺨다[뺨:따] — 뺨아[달마]	묻다[묻:따] — 묻어[무러]
밧다[밧:따] — 밧워[미워]	밧다[밧:따] — 밧으면[발브면]
밧다[밧:따] — 밧아[발바]	붓다[붓:따] — 부어[부어]
살다[살:다] — 살아[사라]	신다[신:따] — 신어[시너]
안다[안:따] — 안아[아나]	알다[알:다] — 알아[아라]

※ 다음과 같이 받침이 없는 용언 어간도 마찬가지이다.

괴다[괴:다]—괴어[괴어]	괴다[괴:다]—괴어[괴어]	늪다[늪:다]—늪어[늪어]
췌다[췌:다]—췌어[췌어]	쏘다[쏘:다]—쏘아[쏘아]	췌다[췌:다]—췌어[췌어]
췌다[췌:다]—췌어[췌어]		

※ 다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다] — 끌어[끄:러]	뺨다[뺨:따] — 뺨은[뺨:븐]
벌다[벌:다] — 벌어[버:러]	췌다[췌:다] — 췌어[씨:러]
없다[없:따] — 없으니[업: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감다[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 — 꼬이다[꼬이다]
넘다[넘:따] — 넘기다[넘기다]	떼다[떼:다] — 떼이다[떼이다]
밧다[밧:따] — 밧히다[발피다]	쏘다[쏘:다] — 쏘이다[쏘이다]
안다[안:따] — 안기다[안기다]	알다[알:다] — 알리다[알리다]
웁다[웁:따] — 웁기다[웁기다]	울다[울:다] — 울리다[울리다]
죄다[죄:다] — 죄이다[죄이다]	

2) 겹받침

겹받침은 앞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 /ㅂ, ㅃ, ㄷ, ㄸ, ㄹ, ㄺ, ㄻ, ㄼ/

값도[갑도], 녀과[넉파], 꾀[골], 할다[할따], 일는다[일는다], 앉고[안꼬], 많소[만쏘]

/ㄹ, ㄺ/은 뒤의 자음이 발음된다.

점다[점따], 읊고[읍꼬]

/ㄹ/은 ‘뱌-, 뉘죽-, 뉘둥-, 뉘적-’의 경우에만 [비]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리]로 발음한다.

뱌다[뱌따], 뉘죽하다[뉘쭈카다], 뉘둥글다[뉘똥글다], 뉘적다리[뉘적따리]

뉘다[널따], 뉘고[널꼬], 여덟[여덜]

/ㄹ/은 [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어간말음 /ㄹ/은 /기/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읽지[익찌], 막다[막따], 뱌는다[방는다], 늑지만[늑찌만]

읽고[일꼬], 맡게[맡께], 뱌기도[발기도], 늑고[늘꼬]

3) 받침 ‘ㅎ’

(1) ‘ㅎ(ㄸ, ㄹ)’ 뒤에 ‘ㄱ, ㄷ, ㅈ’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던[조:던]

쌓지[싸치]

많고[만:코]

안던[안턴]

달지[달치]

알고[알:코]

싫다고[싣타고]

※ 받침 ‘ㄱ(ㄷ), ㄷ, ㅂ(ㅍ), ㅈ(ㅊ)’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하는 때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각해[가카]

먹히다[머키다]

뱌히다[발키다]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뉘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안히다[안치다]

※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옷 한 벌[오탄벌]

낫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밥 한 사발[바판사발]

국 한 대접[구칸대접]

(2) ‘ㅎ(ㅈ, ㅊ)’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달소[다쏘] 많소[만: ㅆ] 심소[실쏘]
끊습니다.[끈쌘니다] 끊사오니[끈싸오니]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앓는[안는]

※ ‘ㅈ, ㅊ’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얹네[안네] 앓는[안는] 똥네[똥네 → 똥레] 똥는[똥는 → 똥른]

(4) ‘ㅎ(ㅈ, ㅊ)’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놓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얹은[아는] 닿아[다라] 싫어도[시러도]

4)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이어질 때

대표음으로 바꾸어서(음절의 끝소리 규칙)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밥]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뎡따] 걸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 ‘맛있다, 멋있다’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없다[너겁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5) 한글 자모의 이름

한글 자모의 이름은 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귤이[디그시] 디귤을[디그슬] 디귤에[디그세]
지읒이[지으시] 지읒을[지으슬] 지읒에[지으세]
치읓이[치으시] 치읓을[치으슬] 치읓에[치으세]
키읔이[키으기] 키읔을[키으글] 키읔에[키으게]
티읕이[티으시] 티읕을[티으슬] 티읕에[티으세]

피음이[피으비]	피윽을[피으블]	피윽에[피으베]
히윽이[히으시]	히윽을[히으슬]	히윽에[히으세]

3.5. 음의 동화

1) 구개음화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굳이듣다[고지듣따]	굳이[구지]	미달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 주의: 밭에[바테], 곁으로[겨트로]

※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건히다[거치다]	받히다[바치다]	

2) 비음화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ㅌ, ㅌ, ㄷ, ㅌ, ㅌ, ㅎ), ㅂ(ㅍ,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강는]	키웁만[키웁만]
뭇뭇이[몽뭇씨]	굽는[궁는]	흙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는]	웃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쫓는]	꽃망울[곤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뺏는[밤:는]	웁는[음는]	없는[엄:는]	값매다[감매다]

(1) 역행비음동화

비음이 아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변동

국물→[궁물], 먹는다→[멍는다], (부엌문→)[부엌문]→[부엌문],
 (흙냄새→)[흙냄새]→[흥냄새], 만며느리→[만며느리], (빋면→)[빋면]→[빈면],
 (밭머리→)[밭머리]→[반머리], 받는다→[반는다], 밥물→[밤물], 잡는다→[잠는다],
 (무릎맞춤→)[무릅맞춤]→[무릅맞춤], (값만→)[값만]→[감만]

(2) 순행비음동화

선행 자음이 /ㅁ,ㅇ/인 경우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변동
남루→[남누], 종로→[종노]

(3) 상호비음동화

‘ㄱ,ㄷ,ㅂ’과 ‘ㄹ’이 만나면, ‘ㄹ’이 ‘ㄴ’이 되고(순행), 이 ‘ㄴ’을 닮아 앞의 ‘ㄱ,ㄷ,ㅂ’이 ‘ㅇ,ㄴ,ㅁ’이 됨(역행).

백로→[백노]→[뱅노], (몇 리→[면리]→[면니]→[면니], 섭리→[섭니]→[섬니])

※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년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국 마시다[궁마시다]

3) /ㄹ/의 /ㄴ/되기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 녍] 침략[침낙] 강릉[강능]
향로[향: 노] 대통령[대: 통녕]

※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 → 망논] 백리[백니 → 뱅니] 협력[협낙 → 협낙] 십리[십니 → 심니]

4) /ㄴ/의 /ㄹ/되기(설측음화)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할루] 대관령[대: 괄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3) 땀 나무[땀: 라무] 갈 농[갈롬] 바람 잣을 날[바람지줄랄]

※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달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례]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5) /ㅣ/ 모음 동화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 ‘이오, 아니오’도 이에 따라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ㅣ/ 모음 역행 동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아바→[애비], (잡히다→)[자피다]→[재피다], 어미→[에미], (먹이다→)[머기다]→[메기다],
 고가→[괴기], (속이다→)[소기다]→[쇠기다], (굶기다→[굸기다]→)[궁기다]→[꿍기다],
 (죽이다→)[주기다]→[쥐기다]

※ 굳어진 말은 표준어로 인정한다.

냄비, 개구쟁이, 멧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냉쿨, 골목쟁이, 발목쟁이,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새끼, 재미, 채비, 내리다, 새기다, 등

※ 주의: 아지랑이

3.6. 경음화

1) 된소리되기1: 안울림소리+안울림소리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ㅂ(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뻬]	깎다[깎따]	넋받이[넋빠지]	샷돈[샷똥]
닭장[닥짱]	침범[침뵤]	뽀대다[뽀땡다]	웃고름[웃꼬름]
있던[읷땡]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낯설다[낯썰다]
발갈이[발까리]	솔전[솔땡]	곰돌[곰똥]	땡개[땡개]
옆집[엷짱]	넙죽하다[넙쭈카다]	읷조리다[읷쭈리다]	값지다[값찌다]

2) 된소리되기2: 울림소리(ㄴ, ㄹ)+안울림 활용어미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 ㄱ]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고]	엮다[언따]
삼고[삼: ㄱ]	더듬지[더듬찌]	닭고[담: ㄱ]	젓지[점: ㅈ]

※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감기다	굽기다	웁기다
-----	-----	-----	-----

3) 된소리되기3: 울림소리(ㄹ)+안울림소리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널게[널궤]	할다[할따]	훤소[훤쓰]	떨지[떨: ㅈ]
--------	--------	--------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뜨]	말살[말쌀]
불소[불쓰](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쯩]	물질[물짚]
발전[발쩐]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세츄]	

※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 - 하다[절절하다](切切 -)
------------------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뜨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궤]	할밖에[할빠궤]	할세라[할세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할진대[할찐대]		

4) 된소리되기4: 사이소리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 - 고리[문꼬리]	눈 - 동자[눈뚱자]	신 - 바람[신빠람]
산 - 새[산새]	손 - 재주[손재주]	길 - 개[길개]
물 - 동이[물동이]	발 - 바닥[발빠닥]	굴 - 속[굴:속]
술 - 잔[술잔]	바람 - 결[바람결]	그믐 - 달[그믐달]
아침 - 밥[아침밥]	잠 - 자리[잠자리]	강 - 개[강개]
초승 - 달[초승달]	등 - 불[등불]	창 - 살[창살]
강 - 줄기[강줄기]		

3.7. 음의 첨가

1) ‘ㄴ’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 - 이불[숨:니불]	홀 - 이불[혼니불]	막 - 일[망닐]
삿 - 일[상닐]	맨 - 입[맨닙]	꽃 - 잎[곤닙]
내복 - 약[내:봉낙]	한 - 여름[한녀름]	남존 - 여비[남존녀비]
신 - 여성[신녀성]	색 - 연필[생년필]	직행 - 열차[지갱널차]
늑막 - 영[능망념]	콩 - 엿[콩년]	담 - 요[담:뇨]
눈 - 요기[눈뇨기]	영업 - 용[영엄농]	식용 - 유[시공뉴]
국민 - 윤리[공민놀리]	밤 - 옷[밤:눈]	

※ 다음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 - 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 - 야금[야금냐금/야그마금]
검열[검:널/거:멸]	올랑 - 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농/그똥]	

※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 - 일[들:릴]	솔 - 잎[솔립]	설 - 익다[설릭따]
물 - 약[물략]	불 - 여우[불려우]	서울 - 역[서울력]
물 - 엿[물련]	휘발 - 유[휘발류]	유들 - 유들[유들류들]

※ ‘ㄴ’이 첨가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한다.

절약[저락] 월요일[워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때에도 이에 따른다.

한 일[한닐]	옷 입대[온닙따]	서른여섯[서른녀섯]
3 연대[삼년대]	먹은 옛[머근넬]	
할 일[할릴]	잘 입대[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섯]
1 연대[일련대]	먹을 옛[머글렘]	

※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 - 연[송:벼련]
등 - 용문[등용문]		

2) 사이시옷 발음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넋가[내:까/넉:까]	셋길[새:길/셋:길]	빨랫돌[빨래돌/빨랜돌]
콧등[코똥/콧똥]	깃발[기빨/깃빨]	대팻밥[대:패뵤/대:팠뵤]
햇살[해쌀/햇쌀]	뱃속[배쓱/뵤쓱]	뱃전[배쩨/뵤쩨]
고갯짓[고개쩨/고갠쩨]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 → 콘날]	아랫니[아랜니 → 아랜니]
뒤틀마루[뵤:마루 → 뵤:마루]	뱃머리[뵤머리 → 뵤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배갯잇[베갠넉 → 베갠넉]	갯잇[갠넉 → 갠넉]
나뭇잎[나뵤넉 → 나뵤넉]	도리갯열[도리갠넉 → 도리갠넉]
뒯[뵤:늉 → 뵤:늉]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
●
●

한국어 언어 정책과 문화 간 소통

최용기 |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한국어 언어 정책과 문화 간 소통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1. 머리말

언어 사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의사표현의 도구이지만 단순히 사용 도구에 머물지 않고 삶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발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언어 정책은 언어의 쓰임을 결정하는 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언어 정책은 그 민족을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언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언어 정책도 국한문 혼용과 한글 전용을 비롯하여 학교 문법 용어의 통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개정, 국어 순화 운동, 한국어의 해외 보급, 국어사전의 편찬, 21세기 국어 정보화 계획 등 중요한 언어 정책들이 상당히 있었다.

언어 정책은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정부의 시정 방책”이라고 정의할 때 국민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토론 없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다행히 한국은 2005년에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한국의 언어 정책과 문화 간 소통이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며 그 출발점은 1945년 광복을 기준으로 2010년 현재까지 한국의 언어 정책이 될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다. 다민족 국가는 어떤 언어를 나라의 공용어(公用語)로 채택할 것인가, 공용어로 채택되지 않은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한 나라 안에서도 표준어를 어떻게 제정하고 보급할 것인가, 국어의 문자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

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도 외래어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이며 외국과 빈번한 교류에서 한글을 로마자로 바꾸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언어 문제와 최근에 한국의 새로운 언어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문화 정책의 하나인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국민과의 소통 수단인 이른바 ‘세종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문화 간의 소통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한국의 언어 정책 추진 기관

한국의 언어 정책은 1989년까지 문교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다가 정부 조직법 개정(대통령령 12895호, 1990.1.3.)으로 1990년 1월에 문화부(→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면서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

문화부는 어문출판국(→문화예술국)과 어문과(→국어민족문화과)를 설치하여 국어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소속 기관으로 국어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립국어연구원(→국립국어원)을 1991년 1월에 설립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국어 정책 추진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의 주요 업무는 국어 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조정 과 추진, 국어의 보존 발전에 관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한국학과 한민족 문화 역사에 대한 기획 연구와 확산, 민족문화의 전승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남북 문화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등의 국어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대통령령 제13163호(1990.11.14.)에 따라 1991년 1월 23일에 설립된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기관으로서 한국의 어문 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고 국어사전 편찬, 각종 어문 규정의 제정과 보급, 각종 어문 자료의 수집, 국어 유산의 보존과 연구를 하는 한편, 국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1984년 5월 10일에 국민의 언어생활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합리적인 어문 정책의 수립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 계도하려고 출발한 문교부의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개원하였는데 그 뒤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급(또는 학예연구관) 원장을 중심으로 기획관리과와 어문연구실, 공공언어지원단, 교육진흥부를 두고 전임 연구원과 행정 직원을 합한 인원은 45명이다.

3. 한국의 언어 정책

3.1. 어문 규정에 대한 정책

한국의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4대 규정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의 표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고유 문자인 한글이란 문자 체계로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총칙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은 3항, 본문은 6장 57항과 부록(문장 부호) 구성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의 내용은 표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소리 나는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는 표음주의를 밝힌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준어 규정도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은 3장 25항이고, 표준 발음법은 7장 30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표준어가 반영된 것은 국어사전인데 최근에 발간된 국어사전은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 사전은 표제어 50만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 사전은 앞으로 100만 단어를 수록하는 ‘한국어지식대사전’으로 증보되고 전자사전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명, 지명 등의 외래어 표기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1986년에 발표된 외래어 표기법은 7개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후에 국립국어원은 1991년에 동구권 5개 언어(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를 대상으로, 1995년에 북구권 3개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를 대상으로, 2004년에 동남아 3개 언어(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2005년에 3개 언어(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등 21개 언어의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을 추가로 만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고시하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 위해 한글을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마자로 음역(音譯)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인을 위해 만든 표기법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을 위해 만든 표기법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표기 체계에는 전자법과 전사법이 있는데 전자법은 한글 표기를 위주로 적는 방법을 말하고, 전사법은 한국어의 발음 위주로 적는 것을 말한다. 전자법은 한글 표기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현실 발음과 다소 차이가 있다. 반면에 발음대로 적는 전사법은 한국인이 금방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 표기가 국어의 어떤 단어를 표기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령, ‘학문’(學問)과 ‘항문’(肛門)은 모두 [항문]으로 발음되므로 ‘hangmun’으로 적으면 한글 원래 표기를 구별할 방도가 없다. 현재의 로마자 표기는 전사법을 채택하고 있다.

3.2. 국어 순화와 문자에 대한 정책

국어 순화는 국어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마디로 고운 말, 바른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광복이 되자 ‘국어 정화’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는 일본말을 조사해서 모은 뒤에 그 말 대신에 쓸 만한 말을 찾아서 1948년에 ‘우리말 도로 찾기’라는 자료집(943 낱말)을 발간하였다. 그 후 한국 정부는 1970년부터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을 세워 한글 전용을 실천하도록 내각에 지시하였고 문교부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1976년에 ‘국어 순화 운동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국어 순화 정책은 1990년 문화부의 출범과 함께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국어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국립국어연구원(→국립국어원)은 매우 적극적으로 국어 순화를 추진하였다. 행정 용어, 생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언론 외래어 등 41개 분야 20,530여 단어를 순화하였다. 특히 2003년에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을 발간하고 시디를 제작하였다. 최근에 국어 순화 양상은 변형된 국어와 통신 언어의 순화로 이동하고 있다.

문자 정책은 한국의 언어 정책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로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하던 때부터 태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론이 대립한 시기는 고종 31년(1894) 11월 21일에 공포된 칙령 제1호 공문식(公文式) 제14조에서부터이다. 곧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국문’이란 한글을 가리키는데 한글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나라를 대표하는 글자(곧 나라글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광복 이후 문자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기본 골격은 한글 전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국한문을 혼용하는 쪽으로 추진하여 왔다.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만 쓰자는 운동은 광복과 함께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1948년의 ‘한글 전용법’(법률 제6호)은 이를 뒷받침해 주었고, 1958년의 ‘한글 전용 실천 요강’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 단체도 이를 적용토록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는 어문 정책의 혁신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알기 쉬운 표기 방법을 연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교부는 국어심의회를 중심으로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문자 정책은 1984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문교부는 로마자 표기법을 고시하였고 학술원 임원회의에서 국어연구소 규정을 통과시켜 국어연구소를 정식으로 출범토록 하였다. 국어연구소는 문교부의 어문 정책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하는 기능을 띠기는 하였지만 한국의 어문 정책을 어느 정도 바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 후에 1991년 국립국어원이 발족되었고,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공포되어 문자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3.3.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정책

남북이 연구 기관과 행정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그 위상과 역사에는 차이가 있다. 행정 기관의 위상에서 남한의 국어민족문화과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는데 북한의 국어사정위원회는 내각 직속으로 되어 있고 언어학연구소는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되어 있다. 각 연구 기관의 역사에서 남한의 국립국어원은 20년 정도인데 북한의 언어학연구소는 60여 년이다.

어문 규정은 크게 표준어와 표기법의 문제를 살피볼 수 있는데, 먼저 표준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자어와 외래어에서보다는 고유어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고유어에서의 차이는 새말을 만드는 경우와 방언이나 고어를 되살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표준어(북한은 ‘문화어’)는 남북이 각각 오랫동안 써 오던 말이므로 단번에 통일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표준어 비교 사전을 만들고,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뒤 합의를 거쳐 단일 표준어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복수 표준어 개념을 수용하여 폭넓게 적용한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구분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만이라도 표준어로 인정한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 표준어로 삼으로 될 것이다.

표기법의 문제는 남북이 형태주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부문이다. 몇 가지 문제는 있는데 자모의 수와 이름, 사이시옷 표기, 한자어의 ‘ㄴ, ㄹ’ 두음의 표기,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자세히 검토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어 순화는 남북한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장 접근이 용이한 분야이다. 이미 다듬어진 남한의 순화어와 북한의 다듬은 말을 재검토하여 서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경하게 만든 새말을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말 중에서 서로 수용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남한의 순화어와 북한의 다듬은 말은 남북이 마주하고 앉아 재검토를 하여, 이들 가운데 현실성이 적은 말은 과감히 빼는 것이 좋겠다. 또한, 남한의 순화어와 북한의 다듬은 말이 서로 같은 형태를 가지며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어사전 편찬은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사전 편찬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이 발간되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전은 단순히 남북한 언어만을 모으는 사전이 아니라 합리적인 체계성을 갖춘 미래 지향의 ‘한국어 종합 사전’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4. 한국어 국외 보급에 대한 정책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외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령, 중국에서는 한·중 국교 수립 이전에는 한국어 또는 한국학 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불과 4~5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수교 후 3년째인 1997년에는 23개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64개

국 75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학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

한국어는 사용 인구수로 볼 때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주요 언어이며, 국외교포 700만 명이 사용하는 제1 언어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SAT II)에서 한국어가 채택된 것이나 호주에서 아시아 언어 중에 우선순위 언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것은 한국어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말해 주고 있다.

4.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7년 업무 보고를 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 세계에 이른바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문화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0개, 2016년까지 200개를 목표로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8년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에서 1단계(2009년~2011년) 200개, 2단계(2012년~2013년) 160개, 3단계(2014년~2015년) 140개, 모두 500개를 목표로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신규 개설은 150개, 명칭 전환을 350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4.1. 세종학당의 명칭

세종대왕은 조선 시대의 제4대 임금으로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존경하고 닳고 싶은 인물로 손꼽고 있는 성군이다. 재임 중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개혁을 주도하였고 백성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으며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다(百姓即天民).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 문자인 한글(훈민정음)을 만드신 분이다. 앞부분 ‘세종’은 여기에서 따왔다. 또한, 뒷부분 ‘학당’(學堂)은 서민과 양반을 구분하지 않은 한민족의 학습 기관인 ‘서당’(書堂)을 연상해서 따왔지만 한자어 ‘사숙’(私塾)과 고유어 ‘글방’과도 같은 뜻이며, 개화기에는 ‘학당’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된 명칭이다. 가령,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의 ‘~학당’과 같은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하였고 세종학당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세종대왕의 개혁 정신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이름으로 적합하여 한국 정부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4.2.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

한국어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그리고 각 대학(국내외)의 한국학과나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

교육 차원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에게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와 국외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국외의 언어 환경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가 국제화·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가 뚜렷해지고 각 나라의 말과 글이 이질적 문화권역 간의 문화 교류와 정보 소통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서구 선진 각국은 ‘문화 강국’은 곧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발전 전략으로 문화의 바탕인 자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권역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전통문화와 인간 중심의 가치 철학이 결합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국외의 언어 환경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류’ 문화의 영향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실시된 한국의 방문 취업제(조선족 대상, H-2)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학습 수요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 학습의 주요 대상은 외교관, 학자, 유학생, 재외동포 2세~3세 등이었으나, 이제는 현지의 대중으로 저변 확대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 수요자 증가는 이것뿐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국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국의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학습 수요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국외의 언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도권 안에서 재외동포와 해외 교민들의 한국어 교육만을 강조해 왔다.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쌍방향 문화가 교류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와 접맥된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교육 대상은 현지 외국인과 국외로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민이 될 것이다.

세종학당의 설립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한국어 교육이 현지 지식인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세종학당의 교육은 대중적 한국어 교육의 확산이다. 과거의 한국학 연구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류 문화의 확산과 한국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다. 과거 제국주의의 국가들이 언어 식민지 정책으로 추진해 온 주입식 방식과는 다르게 쌍방향

문화의 교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적 문화 연대와 현지인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언어는 문화의 바탕이 되므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진흥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세종학당의 운영 계획

세종학당의 운영은 국외의 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현지 대학이나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이 될 것이며 기존 교육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방형 체제로 운용하게 될 것이다. 세종학당의 운영 방식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의 체도와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연간 운영비(교재 개발비, 강사료, 기자재 구입비, 시설비 등)는 한국 정부가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수강생은 본인의 교통비와 교재 구입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 교재는 기존의 범용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 교재를 점검하여 이를 보완하여 당분간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 자료(애니메이션 또는 강사 출연)를 활용할 것이며 국내에서 개발한 자료를 현지인이 점검하는 교재가 될 것이다. 이미 중국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는 동영상 형태로 개발되어 서비스 중이며, 일본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도 동영상 형태로 개발 중이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이른바 ‘누리 세종학당’ 형태로 추진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학당은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 시설과 연계하여 세종학당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세종학당을 신설하여 개원한 곳은 18곳이며, 한국문화원 등에서 명칭 전환을 한 곳은 12곳으로 현재 3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말까지 90여 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세종학당의 원활한 학습을 돕기 위해 2008년에 초급 한국어 교재(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6개 언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총 24권을 개발하였고, 2009년에는 중급 한국어 교재 개발과 현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교재를 개발 중이며, 초급 한국어 교재 지침서와 중급 한국어 교재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학습 교재인 ‘알콩달콩 한국어’와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교재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4.4. 세종학당의 기대 효과

세종학당의 설립은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의 괴테 인스티투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

스, 중국의 공자 학원, 일본의 일본어 교육 센터와 비슷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이다. 그러나 운영 방식에서 세종학당은 다른 나라와의 교육 기관과 그 성격이 다른데 그것은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문화 상호주의에 의한 쌍방향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세종학당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문화 연대를 통한 한국 문화 산업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가 현지민을 중심으로 저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게임 산업, 음반 산업, 영화 산업 등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부가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노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문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가 동북아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제2차 산업의 노동 인력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공급되고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게 되어 한국 사회에 적응이 빨라져 한국 사회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한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어 교육은 곧 한국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확고하게 확보할 것이다.

한 마디로 이를 정리하면 세종학당의 기대 효과는 ‘저비용 고효율의 상승효과’를 추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동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5. 세종 사업의 추진 방향

세종 사업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한글날을 전후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한국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1)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2) 쉬운 언어 사용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 (3)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4) 한글의 홍보와 산업적 활용 제고 방안 모색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사업으로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를 위해 어문 규범 정비를 제안하였다.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말하는데 현행 규범의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을 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로마자 표기법, 2010년 외래어 표기법, 2011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전문 용어 표준화와 언어 정보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국제 산업 표준 규격(ISO/TC37)에 맞게 표준화와 규격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언어 정보화 추진을 위해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 중이며 문자 코드와 특수 언어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쉬운 언어 사용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국어대사전 전면 개편과 위키피디아 형태의 전자 사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발을 계획하고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 편찬과 공공 언어 쉽게 쓰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 지원을 위해 ‘국어생활 종합 상담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단일화하고 국가별로 현지 거점(세종학당 1)-직영점(세종학당 2)-가맹점(세종학당 3) 형태로 조직화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의 숫자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인데 1단계 200개(2009년 35개, 2010년 90개, 2011년 200개), 2단계 360개(2012년 280개, 2013년 360개), 3단계 500개(2014년 430개, 2015년 500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위한 ‘누리 세종학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한글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도 한글문화관 건립(2012년 완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글을 이용한 문화와 산업적 활용 증진을 위해서도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광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한글날을 국제 규모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언어문화 간의 소통과 정책

6.1.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간의 소통 정책

국내 체류 외국인 120만 명, 외국인 근로자 69만 명, 국제결혼 이민자 18만 2천 명, 외국인 유학생 7만 6천여 명 등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언어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육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이민자들에게는 주관 부처가 여러 곳이라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다문화 정책 총괄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지만 언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맡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고 있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맡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한국어 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매개체인 한국어 교육은 필수 요소이다. 당연히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도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학습자가 있고 강의실과 학습 도구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교재를 새로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며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대부분이 자원 봉사자이거나 방문 지도사가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문성이나 교사의 자질보다는 열정만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들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을 돕기 위해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한)국어의 보급’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조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과 ‘한국어 중급’ 교재,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 2’ 교재,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교재를 연속해서 발간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자원 봉사자와 방문 지도사의 유자격화를 위해 양성과정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원용 교재 ‘한국어 교육의 이해’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생존과 소통을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 없이 접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방송을 통한 한국어 학습과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재를 발간하는 일이다. 다행히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EBS)과 한국방송(KBS)이 협조를 잘해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였고 자율 학습의 전 단계인 자녀용 방문 학습지 개발을 마치고 이를 보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도 여전히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남아 있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방법이 아닌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 간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자세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6.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간의 소통 정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국외의 한국어 보급과 교육의 문제일 것이다. 물론 국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등 그 대상이 여러 부류이고 목적과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국외의 소통 정책과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국외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 정부의 주관 부처가 여러 곳이어서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주관 부처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기타 현지 외국인 등 그 대상이 여러 부류이다. 한국 정부의 주관 부처는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이지만 소속 기관이나 산하 단체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먼저 외교통상부와 관련된 산하 단체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이며, 이들이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한글학교이다. 한글학교는 대표적인 민간 교육 기관이며 114개국에 2,096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만 15,000여 명에 이르고 학습자는 130,000여 명에 이른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한국어 교육의 비전문가이지만 열정은 대단하다. 문제는 이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거나 교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속 기관과 산하 단체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숫자는 외교통상부보다도 많다. 한국교육원은 34개, 한국학교는 일본과 북미 등에 27개가 있다. 한국학교는 국내의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기관은 64개국 742개 기관이고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가 개설된 곳은 15개국 628개교다(2008년 1월 기준). 이 가운데 몇몇 대학에는 한국에서 직접 한국학과 한국어 교수를 파견하고 있는데 주요 파견 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연간 100여 명 정도를 파견하고 있다. 이들 기관 중에 한국교육원은 한국어교원이 부족하고 대부분 현지의 한국 유학생들이나 비전공 타과 교원들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속 기관과 산하 단체는 국립국어원, 한국문화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글학회, 국어문화원, 세종학당 등이 있다. 이 중에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교원 연수, 한국어교원 양성 등 한국어 보급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립국어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국어원의 기능이 워낙 광범위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내외 한국어 보급 업무가 중요 업무 중의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 기관보다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3. 언어 정책과 소통을 위한 과제

한 나라의 언어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위에서 밝힌 내용 외에도 맞춤법의 문제, 표준어의 문제, 로마자의 문제, 공용어의 문제, 표기의 문제, 국어 순화의 문제, 전문 용어 표준화의 문제, 자국어 해외 보급의 문제 등 각 나라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 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일수록 더욱 복잡하다. 그래서 한국의 언어 정책은 실천하기 매우 어렵고 국민들이 말도 많고 잘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언어 정책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 분야처럼 심오하게 연구하고 논쟁이 필요한 분야도 아니다. 모두에게 편리하도록 정하였으면 이를 잘 실천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간혹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인내하고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곳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수정하면 된 일이다.

언어 정책을 결정할 때도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의사소통일 것이다. 언어는 사회성을 지닌다고 한다.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은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이를 따른다. 언중들은 언어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도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스스로

조절해 나간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언어 사이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언어 변화도 급격히 진행되어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합리적인 국어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국어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로 한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람의 모든 언어생활은 한국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불필요한 한자어나 외래어,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를 쉬운 한국어로 다듬을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공 기관의 공용문서, 법규 문서, 그 밖의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지원과 한국어 전문가 양성 등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처럼 법령은 아니지만, 한국어와 관련해서 말과 문자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 한국어의 말과 글에 대한 규정은 언어와 문자(표기)에 대한 규정으로 나뉜다. 언어에 대한 규정은 ‘표준어 규정’으로, 여기에는 표준 어휘와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한글 표기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은 ‘한글 맞춤법’이고, 외래어를 표기하는 규정으로 ‘외래어 표기법’과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정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국민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최상의 법과 제도를 지키고 실천할 때에 언어 정책은 성공할 수 있고 소통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7. 맺음말

한국의 언어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막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 비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공포되고 그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 국어 책임관 지정, 전문 용어 표준화, 한국어 교육 활성화, 국어문화원 지정 등 앞으로 국어 정책 추진 기관은 정부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언어 정책은 앞으로 순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응용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과거의 표준어 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각 지방의 지역어 정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라져가는 각 지역어를 보존하고 세계 각 곳에 남아 있는 한국어를 찾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 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민족어 발전을 위한 남북 공동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한국어 국외 보급에도 각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문법서 발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남아 있는 숙제들이다.

또한,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종학당이 추진하려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서 쌍방향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 개설될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적 문화 연대와 현지인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어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며 지식인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극복한 대중적 한국어 문화의 교육이 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세종 사업’도 획기적인 언어 정책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으로 평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쉬운 언어 사용으로 의사소통 증진,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한글의 산업적 활용 제고 방안 모색 등이 새 시대의 언어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일 것이다. 언어 정책의 기준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언어 정책일지라도 국민이나 상대방이 따라 오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 정책은 실천이고 적용이기 때문에 언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토론과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가 어떤 언어 정책을 발표한 뒤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일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를 신뢰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2010-3-24

**사할린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수 교재**

발행일	2010년 10월 26일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전 화	(02) 2669-9775 (02) 2669-9732
인쇄처	(주)크리홍보
